

낙소스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 선정'
Naxos new release

8.557920

비발디:
사계,
바이올린협주곡 Op.8 Nos 5, 6

초량린(vn)
세종

8.570217-18

쇼스타코비치:
발레전곡<황금시대>
(Golden Age)

호세 세레브리에르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8.557671

슈타미츠:
관현악 사중주 Op.14

도날드 암스트롱
뉴질랜드 체임버 오케스트라

8.557992

색소폰과 관현악을 위한 영감
(테오도라키스 외 20세기
그리스 작곡가들의 작품들)

테오도레 케르케조스(sax)
미론 미칼리디스(cond)
테살로니키 국립 교향악단

8.557616

JS 바흐:
베이스를 위한 칸타타들
(BWV 56, 82, 158)

한노 릴라-브라운(bass)
헬무트 빌라-브릴(cond)
필른 체임버 오케스트라

8.570075

라벨:
발레전곡
(다프니스와 클로에)

보르도 오페라 합창단
로렌 프티자르(cond)
보르도 아카데미 국립교향악단

8.557524

슈베르크:
5개의 관현악소품,
첼로협주곡,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의 관현악판곡

프레드 쉐리(vc)
로버트 크래프트(cond)
필하모니아 & 런던 심포니

8.570032

파누프닉:
폴란드 음악에 대한 오마주

이그르 체초호(trp)
마리우스 스톨리(cond)
폴란드 체임버 오케스트라

8.557582

히나스테라:
발레전곡 (파남비),
발레전곡 (에스탄시아)

루이스 가예타(narr, bar)
하셀레 벤-도르(cond)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8.557699

티울칸:
붉은 강

윌리엄 스트롬버그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와 합창단

8.557999

**스파게티 랭 - 만돌린으로
연주하는 랭타임음악들**

샌드 보이스 랭 밴드
레파엘 갈라세 플렉트럼 콰텟
이탈리아 만도 랭-클럽

8.557895

베토벤:
현악삼중주 Op.3, Op.8

아틸라 팔베이(vn)
아노시 페메바리(va)
지오르지 에디(vc)

8.557540

백스:
바이올린소나타 1번 & 3번

로렌스 잭슨(vn)
애슬리 워스(pf)

8.570136

로슨:
현악사중주 1-3번,
주제와 변주곡

마기니 현악사중주단

8.570023-24

크라우스:
5개의 바이올린소나타와
피아노삼중주

발터 슈베테(vn)
존 프라이즌(vc)
자크 드프레(cemb, pf)

8.570660

하이든:
피아노 콘체르티노,
현악삼중주

자비네 바틴(fp)
앙상블 다르코

8.557062

라흐마니노프: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심포닉 댄스,
모음곡 1,2번)

피터 도노후 &
마틴 로스코이(pf)

8.557848

브람스:
네 손을 위한 피아노 작품들
Vol.16(슈만-피아노사중주,
슈베르트-랜들라)

실케-토라 마티스 &
크리스티안 코엔(pf)

8.557937

솔레르:
중고칸타타들 소나타 Vol.12

길버트 로렌트(cemb)

8.570254

삼마르티니:
중고칸타타들 (그리스도의
수난, 성모애상)

다니엘레 페라리
심포니 앙상블

8.557781

**영혼의 시편(시편을 텍스트로
중고합창곡 모음집)**

노엘 에디슨
엘로라 세인트 존스 콰이어

8.557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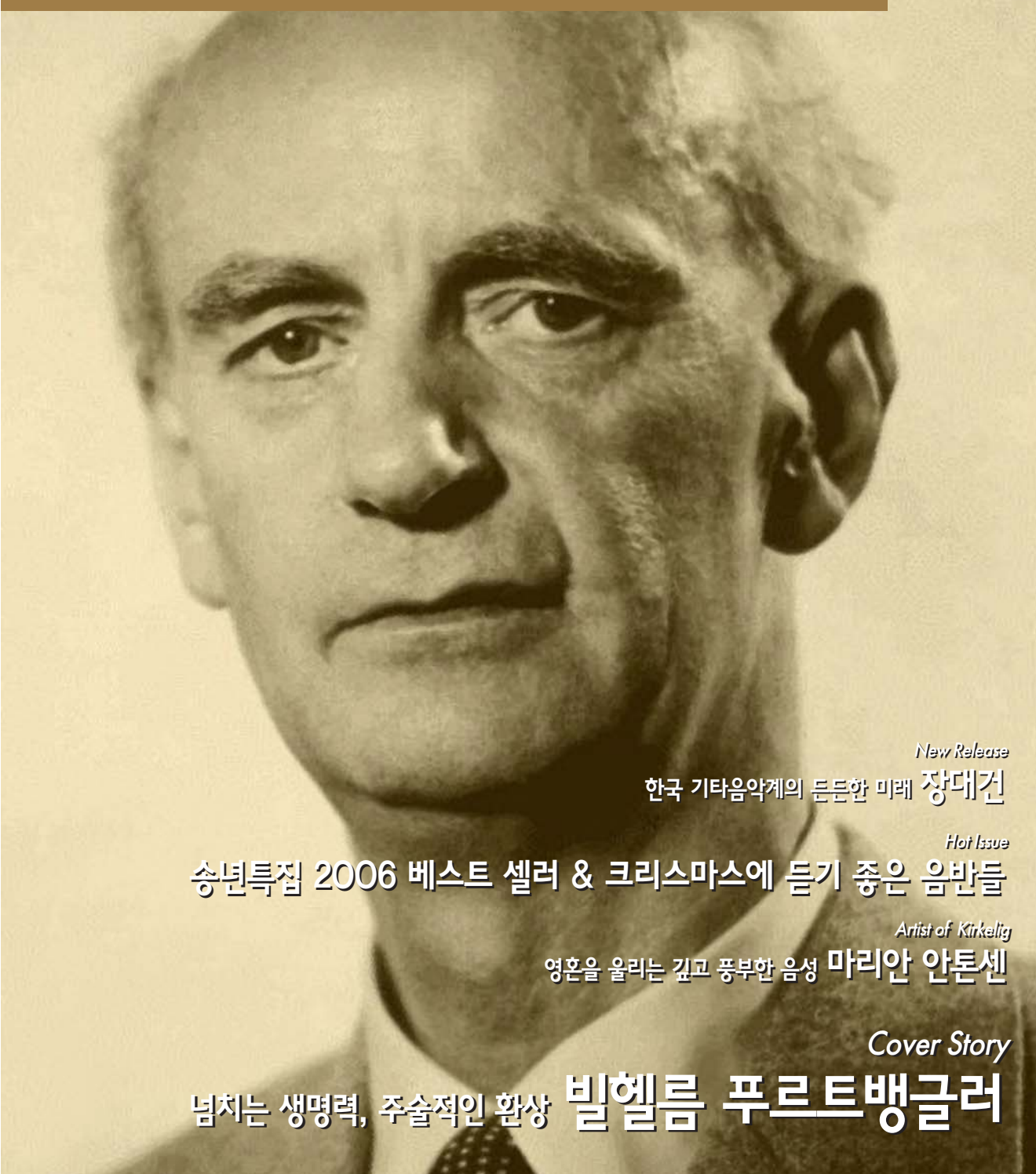
슈베르트:
리트 에디션 22집 -
감수성의 시들 Vol.5

리디아 토이셔(sop)
미르쿠스 올만(ie)
토마스 바우어(bar)
올리히 아이젠로어(pf)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December 2006



New Release

한국 기타음악계의 든든한 미래 **장대건**

Hot Issue

송년특집 2006 베스트 셀러 & 크리스마스에 듣기 좋은 음반들

Artist of Kirkelig

영혼을 울리는 깊고 풍부한 음성 **마리안 안톤센**

Cover Story

넘치는 생명력, 주술적인 환상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넘치는 생명력, 주술적인 환상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Wilhelm Furtwängler

그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는 생명력과 주술적인 환상의 지휘자 빌헬름 푸르트벵글러는 1886년 1월 25일 베를린에서 태어났다. 푸르트벵글러는 전통 게르만 혈통의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푸르트벵글러의 어머니 아델하이트(Adelheid)는 화가였고, 아버지 아돌프는 고대 그리스의 조각품, 토기, 보석 등 수많은 예술을 정리해서 가치를 부여한 업적을 남긴 저명한 고고학자였다. 베를린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8세가 되면서 그는 뮌헨으로 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베를린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가 뮌헨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었다. 부모는 아들이 예사롭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푸르트벵글러를 조금 특별하게 교육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다들 진학하는 정규 학교에 보내지 않고, 대신 고고학자인 루트비히 쿠르티우스(Ludwig Curtius), 조각가 아돌프 힐데브란트(Adolf Hildebrand), 베토벤 저서로도 유명한 예술사가 발터 리즐러(Walter Riezler) 등 저명한 선생들한테 보내 특수 교육을 받게 했다. 그러나 그가 지닌 씨앗의 성격은 이미 7세 때부터 확연히 드러났다. 그 어린 나이에 그는 음악에 남다른 흥미를 보였고 피아노를 배우고 작곡까지 했다. 워낙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긴 했지만 푸르트벵글러가 원래 타고났던 잠재력은 여러 천재 음악가들의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그의 작곡 수업은 아버지의 친구들인 안톤 베어-발브룬(Anton Beer-Walbrunn), 요제프 라인베르거(Joseph Rheinberger), 그리고 막스 폰 실링스(Max von Schillings)한테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가 지휘자로 정식 데뷔한 해는 뮌헨의 카임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1906년이었다. 당시 연주회에 대한 반응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그는 크게 실망하지 않고 이듬해에 오스트리아의 지휘자 펠릭스 모틀(Felix Mottl)의 뮌헨 궁정 오페라에서 지휘수업을 더 받았고, 1910년부터는 한스 피츠너의 슈트라스부르크 오페라에서도 공부했다. 30세쯤인 이 즈음 그의 지휘 수업의 모든 기초는 사실상 확립되었다고 보는데, 이후에는 명실 공히 프로 지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1911년에는 헤르만 아벤트로트의 뒤를 잇기 위해 북독일의 뤼베크 오페라로 갔고 그 악단을 1915년까지 맡아 이끌었다. 그가 여는 콘서트 내용은 점차 독일 신문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917년

에는 자신의 평생 동반자가 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처음으로 지휘하게 되었다. 1919년부터 빈의 톤킨스틀러를 이끌고 정규적으로 무대에 등장했던 푸르트벵글러는 1920년쯤에는 멘겔베르크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거의 같은 레벨의 지휘자로 인정받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마침내 중요한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다. 1922년 1월 23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아르투르 니키슈(Arthur Nikisch)가 타계하자 그 후임으로 푸르트벵글러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빈 필도 똑같이 푸르트벵글러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그는 빈 필의 상임으로도 1930년까지 일하게 된다. 그의 음반들을 많이 경험해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푸르트벵글러의 음반에는 그래서 베를린 필과 더불어 빈 필과의 작업도 많은 것이다. 1931년에는, 비록 바그너 가족들과의 알력으로 이듬해에 사임하게 되지만,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총감독 직책을 얻었고, 1933년 베를린 슈타츠 오페라에서 총감독 및 수석 지휘자를 맡아 일하는 등,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물론 그의 무대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영국 청중들 앞에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푸르트벵글러는 1924년 런던에서 데뷔연주회를 개최했고, 이후로도 정기 공연을 했는가 하면, 1937년에는 자신의 수족과 같은 베를린 필을 데리고 와서 영국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그리고 1938년에는 카본트 가든에서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를 두 번이나 무대에 올렸다. 하지만 미국과 푸르트벵글러는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 푸르트벵글러는 1925년에 미국에 건너가 뉴욕 필을 두 시즌에 걸쳐 지휘했지만 당시 미국 음악계는 미국인들의 음악 이상 토스카니니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푸르트벵글의 예술은 크게 주목 받을 수 없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어 1936년 화가 마티스 사건이 일어난 후에 토스카니니의 후임으로 푸르트벵글러가 뉴욕 필 자리를 놓고 물망에 올랐는데, 이때도 미국 음악계의 시큰둥한 반응으로 미국 진출이 무산되었다. 또 1947년 2월에도 시카고 심포니에서 그를 지휘자로 맞이하려고 했지만, 당시는 전범 재판에서 막 무죄판결을 받은 시절, 미국인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득하게 쌓인 앙금 때문에 강력

한 반대에 부딪치고 만다. (이후 미국에 갈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했던 그에게 1955년에도 마지막 한번의 기회가 찾아왔다. 베를린 필과 함께 미국 방문길에 오르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 가기 한 해전 그를 하늘나라에서 영구직으로 채용해 버렸다.) 이 즈음 푸르트벵글러는 이탈리아의 로마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에 가게 되었지만 곧 베를린에 돌아와 베를린 필에 복귀하게 되었다. 1948년에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가서 활동하기도 했는데,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베토벤 〈교향곡 8번〉 등 유명한 그의 북구 악단과의 음원들은 바로 이 시기의 기록들이다. 건강이 많이 나빠져 있던 1950년대에 들어서도 그는 왕성한 활동을 지속했다. 이탈리아에 가서 〈니벨룽의 반지〉를 연주했는가 하면, 1951년에는 베를린 필을 데리고 이집트에까지 갔었다. 그해 여름에는 레코드 음악사상 가장 괄목할만한 순간에 속하는 위업을 세웠다. 그것은 바로 7월 29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개막 콘서트에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이다. 심오한 정신적 깊이와 뜨겁고 환상적인 정열로 주술적으로 연주된 이 연주를 뛰어넘는 것은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이곡에 관한 한 푸르트벵글러만큼 위대한 순간을 만든 지휘자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도 특별한 정신으로 청중들을 매료시키던 위인은 건강상태가 최악의 길을 걷던 1953년 마침내 빈에서 쓰러지고 이듬해 숲이 울창한 바덴바덴에서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가장 위대한 지휘자를 꼽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푸르트벵글러를 먼저 떠올린다. 그만큼 그는 20세기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격화된 우상이었다. 하지만 격변하는 20세기 초반을 살아갔던 많은 예술가들처럼 푸르트벵글러 역시 평생 어두운 그림자를 달고 다녀야 했다. 그것은 바로 나치

협력 혐의다. 그로 인해 푸르트벵글러는 생전에도 사후에도 오랫동안 구설수에 올랐고, 현재도 그 논란은 끝났다고 볼 수 없다. 1935년 겨울 베를린의 한 자선음악회에서 히틀러와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 1942년 4월 19일 히틀러 생일 기념시장에서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지휘했던 일, 독일 국민들에게 나치 정권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괴벨스의 국가 선전기구에 기여이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던 일 등 위대한 지휘자를 궁지로 내모는 증거들이 여전히 그를 떠받드는 사람들을 주눅 들게 만들었다. 역사의 진실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그의 행동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역시 정치적인 계략이나 교묘한 속셈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했던, 아니 순진했던 그 시기 여러 예술가들 가운데 한 인물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가 받은 오명은 어쩌면 '나약한 예술가의 행동양식이나 성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히틀러 정권하에서 많은 음악가들이 망명의 길을 택했지만, 푸르트벵글러는 순수하게 비정치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여전히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믿고 독일을 떠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의 지휘자로서의 모습이 너무도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푸르트벵글러는 주로 '지휘자'로만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푸르트벵글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어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해 전 생애에 걸쳐 창작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도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느냐고 하늘에 물어본다면, 그는 분명 작곡가의 모습이라고 대답할 것 같다. 실제로 그의 작품들은 뛰어난 것들이 많은데, 그런 성취물은 '유명 지휘자가 쓴 작품'이 아니라 그대로 '위대한 작곡가의 작품'인 것이다.

낙스에서 발매한 주옥같은 푸르트벵글러의 음반

베토벤: 피델리오 Op.72 (1953) 8.111020-21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베토벤: 교향곡 3번 / 코리올란 서곡 (1940-50, Vol.2) 8.110995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1940-50, Vol.3) 8.110996
베토벤: 교향곡 5번 / 바그너: 파르지팔 전주곡 (1937-1939) 8.110879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1938) 8.110865
베토벤: 교향곡 9번 (1951) 8.111060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1952) 8.110321-24
멘델스존/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매뉴인(바이올린) (1951-1952) 8.110991	바그너: 서곡 (1940-50, Vol.4) 8.110997
모차르트: 세레나데 10번 / 13번 (1940-50, Vol.1) 8.110994	바그너: 발퀴레 (1954) 8.111056-58
	베토벤: 교향곡 1,5번 라벨: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2번 BPH 0604



Naxos New Releases



Naxos 8.557920

비발디: 사계, 바이올린협주곡 Op.8 Nos 5, 6

초량린(vn) / 세종

줄리아드의 명교사 강효 교수가 조직한 정상급 체임버 앙상블이자 아스펜 음악제와 대관령 국제음악페스티벌의 상주 악단으로 맹활약 중인 세종(구 세종 솔로이스츠)의 나소스 데뷔음반. 살로넨과 협연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협주곡으로 그라모폰상을 수상했었던 대만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초량린과 함께 비발디의 사계를 녹음하였다. 초량린과 세종은 음반발매에 이어서 오는 12월 3일 예술의전당에서 내한공연을 함께 가질 예정이다.

... 12월 3일 예술의전당 내한 공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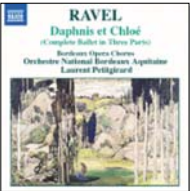


Naxos 8.557616

JS 바흐: 베이스를 위한 칸타타들 (BWV 56, 82, 158)

한노 뮐러-브라흐만(bass) / 헬무트 뮐러-브렐(cond) / 뮐른 체임버 오케스트라

뮐러-브렐이 선보이는 세 번째 바흐 칸타타 음반. 떠오르는 종교음악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대주 뮐러-브라흐만과 함께 베이스를 위한 칸타타 3편을 녹음하였다. 바흐가 남긴 가장 서정적인 아리아의 하나로 손꼽히는 'Schlummert ein' 이 포함된 BWV82 'Ich habe genug' (나는 죽어도다)가 수록되었다.



Naxos 8.570075

라벨: 발레전곡 <다프니스와 클로에>

보르도 오페라 합창단 / 로렝 프티지라르(cond) / 보르도 아키텐 국립교향악단

디아길레프의 위촉으로 완성한 발레 <다프니스와 클로에>는 라벨이 남긴 최고의 무대음악이다. 주로 두 편의 관현악 모음곡 형태로 연주 및 감상되어왔으나, 신보는 한 시간 남짓한 전곡을 고스란히 수록하였다. 미처 모음곡에 포함되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들에서도 작곡가 특유의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은 변함없이 빛난다.



Naxos 8.557524

쇤베르크: 5개의 관현악소품, 첼로협주곡, 브람스 피아노사중주의 관현악편곡

프레드 쉐리(vc) / 로버트 크래프트(cond) / 필하모니아 & 런던 심포니

쇤베르크의 첼로협주곡은 바로크시대의 작곡가 마티아스 문의 하프시코드협주곡을 카잘스를 위해 편곡한 것이다. 카잘스는 이 작품이 너무 연주하기 어렵다고 꺼렸으나 이후 포이어만에 의해 초연되었다. 5개의 관현악소품은 작곡가의 가장 대표적인 관현악 작품. 브람스의 피아노사중주에 대한 관현악편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570217-18

쇼스타코비치: 발레전곡 <황금시대>(Golden Age)

호세 세레브리에르 /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경기를 위해 서방도시에 찾아온 소비에트 축구팀의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그린 3막의 발레 <황금시대>는 쇼스타코비치의 초기 관현악작품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들 중 하나다. 특히 3막의 폴카는 각종 판토마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어 우리 귀에 너무나 친숙해진 작품이다. 이 음반은 악보에 지시된 모든 반복을 완벽하게 준수한 명실상부한 이 작품의 최초 전곡녹음이다.



Naxos 8.570032

파누프닉: 폴란드 음악에 대한 오마주

이고르 체초호(trp) / 마리우스 스몰리(cond) / 폴란드 체임버 오케스트라

폴란드에서 태어난 파누프닉은 처음 지휘자로 명성을 날렸으나 영국으로 망명한 이후에는 작곡활동에 몰입하였다. 본 음반에 수록된 곡들은 모두 폴란드의 옛 음악들을 재구성한 것들이다. 트럼펫과 관현악을 위한 '넷 모드의 협주곡', 플루트와 관현악을 위한 '쇼팽 오마주' 등 고풍스런 선율과 근대적 감각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Naxos 8.557582

히나스테라: 발레전곡 <파남비>, 발레전곡 <에스탄시아>

루이스 가에타(narr, bar) / 히셀레 벤-도르(cond) /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르헨티나의 히나스테라는 빌라로보스와 함께 20세기 라틴아메리카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다. 음반에 수록된 두 편의 발레는 작곡가가 자국의 전통음악에 몰입하던 시절의 작품들. <에스탄시아>의 마지막 곡인 '말람보'는 독립적으로도 자주 연주되는 작곡가의 대표적인 인기작. 서정미의 극을 보여주는 '밀의 춤'도 놓칠 수 없는 트랙이다.



Naxos 8.557699

티오킨: 붉은 강

윌리엄 스트롬버그 /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하워드 혹스 감독의 1948년 영화 <붉은 강>(Red River)은 존 웨인과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열연했던 서부영화의 고전이다. 영화음악을 맡은 이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작곡가 티오킨. 서부의 광활한 풍광과 사나이들의 거친 영웅담이 대편성 합창과 관현악을 통해 장대한 음악으로 표현되었다.



Naxos 8.557999

스파게티 랙 - 만돌린으로 연주하는 랙타임음악들

센터 보이스 랙 밴드 / 라파엘 칼라체 플렉트럼 콰텟 / 이탈리아 만도 랙-클럽

스코트 조플린의 '엔터테이너'로 대변되는 미국의 랙타임 음악을 만들린 합주로 연주한 독특한 음반. 이는 20세기 초에 활약했던 이탈리아계 미국인들로 구성된 만돌린 오케스트라가 랙음악을 즐겨 연주했었다는 기록에 기초한다. '엔터테이너'를 위시한 랙음악의 흥겨움이 만돌린의 독특한 사운드와 색다른 조화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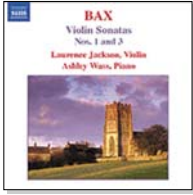


Naxos 8.557895

베토벤: 현악삼중주 Op.3, Op.8

아틸라 팔배이(vn) / 야노시 페예바리(va) / 지요르지 에더(vc)

베토벤의 현악삼중주들은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K563과 더불어 이 장르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손꼽힌다. Op.3은 모차르트의 작품을 모델로 한 초기작, 오페라 부파 스타일의 론도악장이 빛난다. Op.8은 색채와 조직감의 대비를 강조한 베토벤의 실험성이 돋보이는 작품.



Naxos 8.557540

백스: 바이올린소나타 1번 & 3번

로렌스 잭슨(vn) / 애슐리 워스(pf)

백스의 소나타 1번에 드러나는 로맨틱시즘은 작곡가의 개인적인 연애사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작곡가는 이후 2개의 악장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였지만, 오리지널 버전의 아름다움은 그냥 버려지기 아까울 정도다. 본 음반은 이 작품의 두 버전을 함께 수록하였다. 아일랜드의 풍광과 민족성에 영감을 얻은 소나타 3번 역시 낭만주의적인 필치로 완성한 작품.



Naxos 8.570136

로슨: 현악사중주 1-3번, 주제와 변주곡

마기니 현악사중주단

영국 근대 실내악 레퍼토리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어온 마기니 사중주단의 최신보, 영국의 근대 작곡가 로슨이 남긴 3편의 현악사중주는 작곡가의 음악경력의 변화상을 반영한다. 변주곡 장르에 대한 작곡가의 남달랐던 정성의 시작을 보여주는 1번, 보다 간결하고 압축된 양식을 보여주는 2번, 만년의 심원한 창의력을 다층 구조 속에 표현했던 3번을 마기니 사중주단의 무결한 연주로 담았다.



Naxos 8.570023-24

크라우스: 5개의 바이올린소나타와 피아노삼중주

발터 슈베데(vn) / 존 프라이즌(vc) / 자크 드프레(cemb, pf)

크라우스는 모차르트와 거의 동시대에 활약했던 독일 작곡가. 스톡홀름의 구스타프 3세의 궁정이 그의 주요 활동무대였다. 왕의 취향에 맞추어 주로 극음악 작품에 매달렸으나, 틈틈이 실내악과 가곡 등에서도 훌륭한 작품을 다수 남겼다. 5편의 바이올린소나타와 피아노트리오에서 드러나는 간결하고도 명료한 고전시대의 아취가 매력적이다.

슈타미츠: 관현악 사중주 Op.14

도날드 암스트롱

뉴질랜드 체임버 오케스트라

초기 고전시대를 대표하는 만하임 악파의 핵심 작곡가인 칼 슈타미츠는 삼마르티니와 함께 고전교향곡의 틀을 잡은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50여 편의 교향곡과 40여 편의 심포닉 콘체르탄테를 남겼는데, 실내악에서도 상당수의 작품을 남겼다. Op14는 현악사중주와 현악합주 양쪽 모두로 연주 가능하게끔 의도되어진 독특한 작품들. 에너지 넘치는 빠른 악장들과 우아한 느린 악장의 조화로운 마치 작곡가의 교향곡들을 듣는 듯한 음악적 감흥을 안겨준다.



Naxos 8.557671



Naxos 8.557992

색소폰과 관현악을 위한 영감(테오도라키스 외 20세기 그리스 작곡가들의 작품들)

테오도레 케르케조스(sax)

미론 미칼리디스(cond)

테살로니키 국립 교향악단

색소폰은 독특한 음색에도 불구하고 클래식음악계의 주류가 되지 못한 악기다. 하지만 일부 20세기 그리스 작곡가들은 이 악기의 놀라운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작품에 접목시켰다. 보스니아 내전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아다지오와 크레타 섬의 풍광을 음악에 담은 크레타협주곡 등 테오도라키스의 두 작품이 특출하며, 그 외에도 그리스 특유의 향토색을 머금은 독특한 작품들이 색소폰이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Naxos 8.557660

하이든: 피아노 콘체르티노, 현악삼중주

자비네 바틴(fp) / 앙상블 다르코

2 바이올린과 1 첼로의 반주와 독주 건반악기로 편성된 하이든의 콘체르티노는 소규모 가정 연주회와 연주회장의 대중 콘서트 양쪽 모두에서 연주 가능하게끔 고안된 장르다. 본 수록곡은 작곡가가 에스테르하지 궁정에서 일하던 초기에 완성된 것들로, 주군이 직접 연주할 경우에도 무리 없이 연주가 가능하도록 기교적으로 배려된 작품들이다. 1893년에 제작된 포르테피아노를 녹음에 활용하였다.



Naxos 8.557062

라흐마니노프: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심포닉 댄스, 모음곡 1,2번)

피터 도노휴 & 마틴 로스코이 (pf)

라흐마니노프의 두 모음곡은 기존 편곡이 아닌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오리지널 창작곡. 모음곡 1번에는 쇼팽, 리스트, 차이코프스키의 영향을 느낄 수 있으며, 2번 협주곡과 거의 동시에 완성된 2번 모음곡은 보다 원숙미를 보여주는 작품. 이에 반해 심포닉 댄스는 작곡가 최후의 관현악 걸작을 편곡한 것이다. 영국을 대표하는 두 피아니스트 피터 도노휴와 마틴 로스코이가 멋진 호흡을 보여준다.



Naxos 8.555848

브람스: 네 손을 위한 피아노 작품들 Vol.16(슈만-피아노사중주, 슈베르트-랜틀러)

실케-토라 마티스 & 크리스티안 코옌(pf)

브람스는 친구들과의 연주와 같은 개인적인 목적과 더불어 작품의 보다 대중적인 출판을 위해서도 자신 또는 선배작곡가들의 작품을 네 손을 위한 피아노 버전으로 즐겨 편곡하였다. 신보에는 스승 슈만의 실내악 걸작인 피아노사중주, 절친한 친구 요아힘의 험릿 서곡, 그리고 슈베르트의 20개의 랜틀러에 대한 편곡들이 수록되었다.



Naxos 8.557937

솔레르: 하프시코드 소나타 Vol.12

길버트 로랜드(cemb)

스페인의 스카를라티노 일컬어지는 안토니오 솔레르는 수도원에서의 엄격한 수도생활 와중에도 뛰어난 키보드 소나타를 150곡 이상 작곡했던 독특한 경력의 작곡가였다. 앞서 발매된 11장의 소나타 작품집을 통해 현존 최고의 솔레르 스캐폴리스트로 자리매김한 길버트 로우랜드가 경쾌한 터치와 안정된 연주력으로 작곡가의 생기발랄한 매력을 한껏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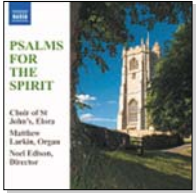


Naxos 8.570254

삼마르티니: 종교칸타타들 (그리스도의 수난, 성모애상)

다니엘레 페라리 / 심포니카 앙상블

18세기 밀라노 등지에서 활약했던 삼마르티니는 초기 고전양식의 정립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교향곡, 현악 사중주, 독주협주곡 등등 대부분의 고전 장르에 걸쳐서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종교합창곡 분야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 신보에 수록된 두 칸타타는 이탈리아인 특유의 유장한 선율감각과 화려한 성악기교가 돋보이는 작품들.



Naxos 8.557781

영혼의 시편 (시편을 텍스트로 종교합창곡 모음집)

노엘 에디슨 / 엘로라 세인트 존스 콰이어

시편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찬양의 근간이 되어왔다. 본 음반은 모차르트의 제자였던 토마스 아트우드에서부터 현존작곡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에 걸쳐서 완성된 영국 성공회 전례를 위한 시편 가사의 종교합창곡들을 담았다.



Naxos 8.557373

슈베르트: 리트 에디션 22집 - 감수성의 시들 Vol.5

리디아 토이셔(sop) / 마르쿠스 울만(te) / 토마스 바우어(bar) / 올리히 아이젠로어(pf)

낙소스의 슈베르트 전집은 베렌라이터의 뉴 슈베르트 에디션에 기초하여 가장 최근의 연주성과를 음반에 반영하였다. 이 신보는 그 중 독일시인 루트비히 코제가르텐의 시에 곡을 붙인 21곡을 간추렸다. 얼마 전 헤레베헤와 함께 내한했던 토마스 바우어를 비롯한 독일의 성악기대주들이 아이젠로어의 노련한 반주와 호흡을 맞추었다.



Naxos 8.559280

번스타인: 디빅, 팬시프리

마크 라이싱어(bass) / 뎀 올리히(bar) / 앤드류 모렐리아(cond) / 내쉬빌 심포니

발레 <디빅>(악령)은 이스라엘 건국 25주년을 기념하여 완성한 작품. 선과 악의 충돌이 각각 조성음악과 무조음악의 틀을 빌어서 음악적으로 표현되었다. 발레 <팬시프리>는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안겨준 최초의 작품. 클래식과 대중음악 사이를 교묘하게 줄타기하는 번스타인 특유의 악풍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작품이다.



Naxos 8.559281

허쉬: 교향곡 1,2번

마린 알소프 /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이클 허쉬(1971년생)는 작곡부문의 유서 깊은 상들인 로마대상과 베를린대상을 수상하면서 미국 음악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각광받고 있는 젊은 작곡가다. 교향곡 1번은 말러와 베르크의 영향이 드러나는 작품인 반면, 교향곡 2번은 보다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음악구조를 보여준다. 작곡가의 최신작인 두 관현악 소품, '프락타'와 '아라세'가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559282

토흐: 춤곡모음곡, 첼로협주곡

크리스티안 폴테라(vc) / 토마스 캐롤(cond) / 베를린 스펙트럼 콘서트

빈과 베를린을 무대로 활약했던 에른스트 토흐(1887-1964)는 나치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지만, 신대륙에서는 작곡가로서 이전만큼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춤곡모음곡과 첼로협주곡 모두 자신의 전성기였던 1920년대 유럽에서 완성한 작품들로, 모든 근대적인 음악조류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자신의 음악세계를 구축했던 이 작곡가의 재능을 확연히 보여준다.



Naxos 8.559299

미국 합창음악들 (코플랜드, 코릴리아노, 아이브스, 포스, 퍼시체티)

제임스 모로우 / 텍사스 대학 실내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이 앤솔로지 음반은 현대 미국 합창음악의 메인스트림을 대변하는 작품들을 담았다. 아이브스의 시편 90장은 뉴잉글랜드 청교도 찬송가의 전형을 보여주며, 코플랜드의 '테초에'는 자신의 명작 '보통 사람들을 위한 팡파르'를 연상케 한다. 그 외 루카스 포스, 존 코릴리아노와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합창곡들을 여기서 만나볼 수 있다.



Naxos 8.559446

베를린스키: 아버지의 세계로부터, 심포닉 비전, 쇼파르 전례

BBC 싱어즈 / 제러드 슈워츠(cond) / 시애틀 심포니 외

라이프치히와 파리를 거치며 음악을 배웠던 헤르만 베를린스키(1910-2001)는 미국으로 건너온 이후 작곡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로 활약하였다. 그의 음악은 유대음악의 전통을 후기낭만주의적인 서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 음반은 유대회당을 위한 작품인 '쇼파르 전례', 유대색 질은 일반 콘서트용 관현악곡 두 편, 그리고 오르간작품 '불타는 떨기나무'를 수록하였다.



Naxos 8.570344-45

The Very Best of Christmas (유명작곡가들의 크리스마스를 위한 음악들)

크리스마스시즌을 위한 낙소스의 베스트 컬렉션. CD1에는 인기 캐럴과 함께 성탄을 노래하는 여러 유명작곡가들의 종교합창곡들이, CD2에는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겨울시즌을 그려낸 비발디의 겨울, 차이코프스키의 12월, 모차르트의 쉔매음악, 립스키코르사코프의 크리스마스이브 등등의 스탠더드 클래식레퍼토리들을 담았다.



Naxos 8.558196-97

Discover Series - Opera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에서 비트휘슬의 <오르페오의 가면>에 이르는 400년에 걸친 오페라의 발전사를 더듬어 본다. 오페라 역사의 이정표가 되었던 걸작들의 단편을 담은 2장의 CD와 진귀한 사진자료, 간결한 연대표, 풍부한 해설을 담은 160페이지 분량의 두툼한 내지가 오페라 입문자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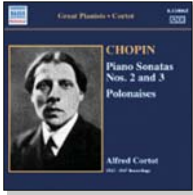
Naxos Historical, Jazz Legends



Naxos 8.111116

벤노 모이세비치 에디션 Vol.10 (1916-25 어쿠스틱 레코딩스)

모이세비치가 남긴 어쿠스틱 레코딩 중에서 쇼팽을 제외한 기타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간추렸다. 극 초기 협주곡 녹음의 하나인 멘델스존의 피아노협주곡 1번 전곡과 더불어, 라모의 가보트에서 드뷔시와 라벨의 인상주의 작품들에 이르는 거장의 폭넓은 레퍼토리를 이 음반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Naxos 8.111065

쇼팽: 피아노소나타 2,3번, 폴로네이즈 (1923-47년 녹음)

알프레드 코르토 (pf)

20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코르토, 그가 연주하는 쇼팽의 피아노소나타 2,3번을 함께 담았다. 2번은 1928년, 3번은 1933년 녹음된 연주. 그 외에도 그랜드 폴로네이즈, 영웅 폴로네이즈, 폴로네이즈-판타지아, 그리고 리스트가 편곡한 3개의 찬트 폴로네이즈가 음반의 여백을 빼곡히 채웠다.



Naxos 8.110725

플라그스타트가 노래하는 가곡과 아리아 (1937년 녹음)

키르스텐 플라그스타트(sop) / 유진 오먼디(cond) /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1935년 메트에서의 데뷔 이후 플라그스타트는 20세기의 위대한 바그너 소프라노로 등극하게 되었다. 이 음반은 그가 1937년에 남긴 레코딩 전부를 담았다. 장기인 바그너의 대표적인 소프라노 아리아들을 유진 오먼디의 협연으로 녹음하였고, 고국 작곡가 그리그의 가곡들에서 이 거물급 소프라노의 또 다른 섬세한 일면을 만나게 된다.



Naxos 8.111103

베나미노 질리 에디션 Vol.14 (1949,51년 런던, 밀라노, 리우 데 자이네로 레코딩)

이 음반의 등장으로 낙소스의 질리 에디션은 마지막 음반 하나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이번 14집에는 딸 리나와 함께 했던 1951년의 듀엣 레코딩을 비롯하여 갈다라, 마르첼로, 카리시미와 같은 옛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아리아에서 푸치니의 투란도트 중 'Nessun dorma', 텐차의 '푸니쿨리 푸니쿨라' 등의 애창곡을 망라하였다.



Naxos 8.110331

존 맥코맥 에디션 Vol.4 (1913-14년 어쿠스틱 레코딩)

맥코맥은 오페라 무대에서도 슈퍼스타로 군림했으나, 그의 재능은 달콤한 발라드와 같은 노래들에서 더욱 두각을 드러내었다. 본 음반은 그가 남긴 아일랜드 민요, 빅토리아시대의 발라드를 담았다. 그 외에도 슈베르트와 구노의 아베 마리아, 토스티의 작별, 리콜레토 중의 '이것도 저것도' 등의 귀에 익은 선율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Naxos 8.111064

모차르트: 레퀴엠 (1941년 녹음)

피아 타시나리(sop) / 에베 스티나니(alt) / 페루치오 탈라비니(ite) / 타요 페루치오(bass) / 빅토르 데 사바타 / 이탈리아 방송교향악단

이 역사적인 녹음은 1941년 로마 산타 마리아 바실리카에서 있었던 모차르트 서거 150주기 기념식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불세출의 테너 탈라비니를 비롯한 당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데 사바타의 열정적인 지휘 아래서 역사의 한 순간을 만들어내었다.



Naxos 8.111060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1951년 바이로이트 실황)

슈바르츠코프, 뢰겐, 호프, 에델만 /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달리 설명이 필요없는 빌헬름 푸르트벵글러의 1951년 바이로이트 페스트하우스 재개관 기념 콘서트 실황이 드디어 낙소스를 통해 선보이게 되었다. 복각의 귀재 마크 오버트 손의 탁월한 솜씨를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4악장을 전부 8부분으로 트랙을 세분해놓은 것도 감상자의 편의성을 높여준다.



Naxos 8.120732

Bessie Smith: I've Got What It Takes (1929-1933)

'블루스의 여왕' 베시 스미스는 20세기 재즈음악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끈적이는 목소리와 감각적인 스킷 창법으로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의 전형을 만들었던 이 위대한 여가수의 전성기를 기록한 음반.



Naxos 8.120803

Tony Bennett: While We're Young (1950-1955)

지금도 은발을 휘날리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토니 베넷. 그의 데뷔 초기인 1950년대의 노래들을 담은 음반이다. 프랭크 시나트라와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언급되었던 이 스탠더드 팝의 황제는 재즈 분야에서도 좋은 활동을 보여주기도 했다. 'Because of you', 'Stranger in paradise' 와 같은 추억의 인기곡들을 수록.



www.kkv.no

KKV(Kirkelig Kulturverksted)



FXCD 309

마리아 솔하임: 봄이 될 것이다

노르웨이 최고의 신예

마리아 솔하임은 1982년 생, 현재 20대 중반의 아주 젊은 가수다. 15세 때 노르웨이의 피아니스트 벵그트 한센의 눈에 띄어, 시골 마을 교회에서 노래하다가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는데, 유명한 'barefoot' 앨범의 모든 곡을 쓰기도 했던 뛰어난 작곡가이기도 하다. 그녀는 주로 아름다운 팝송과 서정 가곡들을 불러왔지만, 이번 음반에서는 보다 진일보해, 그녀는 '어려운' 음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약간은 환각적인 분위기까지 내는 노래들 선사한다. "Trail" 음반에서 함께 일했던 에밀 니콜라이센 프로듀서와의 보다 진취적인 작업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녀의 끝을 모르는 실험정신과 멋진 행보를 보여주는 앨범인데, '달빛', '나의 모든 생각', '다른 계절들' 등 매력적인 노래들이 11개 트랙에 담겼다.



FXCD 311

스티안 카르스텐센, 프로드 알내스, 아릴 안데르센: 가을 슬로우

가을의 빛깔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앨범

프로드 알내스, 아릴 안데르센 그리고 스티안 카르스텐센. 여름노래와 크리스마스 캐럴을 아주 독특하게 연주 해주더니, 이번에는 가을 노래들을 들고 나왔다. 기타, 베이스,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이 탁월한 음악가들은 음악적이면서도 진숙하고 매력적인 사랑의 음악들을 많이 연주해왔는데, '기억해 보세요(Try to remember)', '내 머리위에 빗방울은 계속 떨어지고', '그대의 배가 멀리 갈 수 있으면' 등 이번 음반도 놀라움 자체다. 가을날의 환상적인 안개풍경, 풍년을 알리는 황금 들녘,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냉혹한 바람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가을 빛깔을 내는 명곡들이 담겼다.



FXCD 312

스크루크 합창단 & 니마르크 콜렉티브: 깊게, 고요하게, 강하게, 부드럽게

올해 최고의 합창음반으로 손색없다

놀랍도록 매력적인 합창 앨범을 발표해왔던 스크루크 합창단과 니마르크 콜렉티브가 새로 내놓은 노르웨이 종교 가곡들이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선율이 아름다운 재즈 전통에 녹아 아주 새로운 노래로 변신했다. 노르웨이 제 1급의 합창단과 부드럽고 유려한 니마르크 콜렉티브 밴드는 타이틀 곡인 '깊게, 고요하게, 강하게, 부드럽게' 외에 '산산이 흩어진 당신의 바위', '그분은 진주 장식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찬송가로 널리 알려진 '내 주를 가까이' 등을 노래한다. 트럼펫, 베이스, 드럼, 그리고 천상의 화음으로 노래하는 합창단이 들려주는 아주 이색적인 성가 음반.

송년특집 2006 베스트 셀러

다사다난했던 2006년을 보내며 한해동안 가장많은 판매고를 기록한 음반들을 레이블 별로 정리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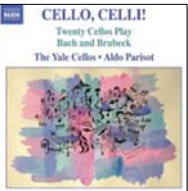
Naxos Best 30



Naxos 8.557683



Naxos 8.111025



Naxos 8.557816



Naxos 8.557447

1위

카발레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 2번

방인주(피아노) /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카발레프스키는 쇼스타코비치와 거의 동시대에 활약했던 소비에트 작곡가의 한 사람이자, 뛰어난 기교를 자랑했던 비르투오조 피아니스트였다. 그의 피아노협주곡은 라흐마니노프와 프로코피예프의 영향이 물론 배어나오는 선율적인 작품들로, 20세기 작품답지 않은 친근함이 인상적이다. 2004년 14세의 나이로 스페인의 푸이세르다 국제 콩구르를 석권했던 우리의 신예 피아니스트 방인주의 조숙한 연주력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2위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마리아 칼라스 sop / 주제페 디 스테파노 te / 롤란도 파넬라이 bar / 안나 마리아 카날리 ms, 밀라노 라 스칼라 오페라 / 틀리오 세라핀 cond

Recorded: 16-25 June and 3-4 August 1953

Mark Obert-Thorn, producer and audio restoration engineer

3위

첼로, 첼리

예일 첼로스/ 알도 파리스트

20대의 첼로 앙상블이 연주하는 바흐와 브루벡

탄탄한 합주력과 적절한 편곡으로 첼로 앙상블의 예술성을 진일보시켰던 예일 첼로스가 낙소스를 통해 신보를 발매하였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협주곡과 데이빗 브루벡의 재즈넘버라는 상극의 레퍼토리를 통해 첼로의 그윽한 중저음이 한결 매력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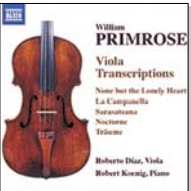
페르골레지: 스타바트 마테르, 살베 레지나 C 단조

외르그 바신스키(남성소프라노) / 마이클 찬스(카운터 테너) / 쾰른 체임버 오케스트라 / 헬무트 뮐러 브릴

26세로 요절한 비운의 작곡가 페르골레지. 그의 '스타바트 마테르'는 오페라 '마님이 된 하녀'와 함께 그의 이름을 아직도 잊지 못하게 만든 걸작 종교곡이다. 많은 음반이 있으나 이 음반은 대단히 독특하다. 두 성인남성이 솔리스트로 기용된 것. 관록의 카운터테너 마이클 찬스가 참여한 점도 주목할 만하며, 카스트라토를 연상케 하는 남성소프라노 바신스키의 전율적인 음성이 이 음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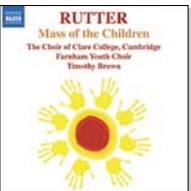
Naxos 8.111026-27



Naxos 8.557391



Naxos 8.111024



Naxos 8.557922



Naxos 8.557598



Naxos 8.557764

5위

푸치니: 나비부인

마리아 칼라스 sop / 니콜라이 겐타 te / 루치아 다니엘리 ms / 마리오 보리엘로 bar / 레나토 에르콜라니 te / 루이자 빌라 ms / 마리오 칼린 bar / 플리니오 클라바시 bass / 밀라노 라 스칼라 오페라 / 헤르베르트 폰 카리안 cond.

Recorded: 1-6 August 1955

Mark Obert-Thorn, producer and audio restoration engineer

6위

프림로즈: 비올라 편곡 소품집

로버트 디아즈(비올라) / 로버트 쾰니히(피아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비올리스트 윌리엄 프림로즈가 자신의 악기 비올라를 위해 편곡했던 고금의 유명 선율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연주자이자 현재 커티스음악원장으로 재직 중인 로베르토 디아즈가 프림로즈가 사용했던 아마티로 연주하였다. 보로딘의 녹턴,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 빌라로보스의 바키아나스 브라질리아스, 차이코프스키의 다만 외로움을 아는 자만이 등등

7위

레온카발로: 팔리아치

주제페 디 스테파노 te / 마리아 칼라스 sop / 티토 곱비 bar / 롤란도 파넬라이 bar / 니콜라 몬티 te / 밀라노 라 스칼라 오페라 / 틀리오 세라핀 cond.

Recorded: 12-17 June 1954

Mark Obert-Thorn, producer and audio restoration engineer

8위

러터: 어린이를 위한 미사, 그림자들, 결혼 축하

캠브리지 클레어 칼리지 합창단 / 클레어 체임버 앙상블 / 팀 브라운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낙소스 음반의 하나였던 레퀴엠에 이어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러터의 종교합창곡집이 등장하였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러터가 육성했던 클레어 칼리지 합창단이 연주를 맡았고, 작곡가 본인이 직접 프로듀싱을 맡았다. 소년들의 맑은 음성이 사랑스러운 어린이를 위한 미사와 기타 반주의 연가곡 '그림자', 제목에 잘 어울리는 순결한 아름다움을 담은 '웨딩 칸타타' 이 수록되었다.

9위

파가니니: 기타 작품집

마르코 타마야(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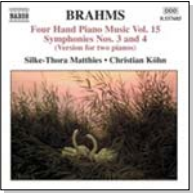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추앙받는 파가니니. 그러나 그가 동시에 뛰어난 기타리스트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유명한 오페라 선율들에 기초한 흥미로운 작품인 'Ghiribizzi', 초절기교를 요구하는 그랜드 소나타 등 로맨틱 기타음악의 진면목을 이 음반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명한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카프리치오 중의 세 곡을 기타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

10위

헨델: 수상음악, 왕궁의 불꽃놀이

아라디아 앙상블 / 케빈 말론

현재 낙소스의 바로크 레퍼토리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케빈 말론과 아라디아 앙상블이 헨델의 가장 유명한 두 걸작에 도전하였다. 시대악기 특유의 섬세한 소노리티를 통해 춤곡 모음곡의 경쾌함과 화려함을 한껏 강조한 연주로 특히 왕궁의 불꽃놀이는 오리지널 필사본에 포함된 트라베르소 플루트 파트를 적용한 최초 레코딩이다.



Naxos 8.557685

11위

브람스: 교향곡 3, 4번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편곡)

실케-토라 마티스 & 크리스티안 코엔(피아노)

브람스는 자신이 작곡한 교향곡, 실내악, 성악곡 등의 상당수를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해 편곡해 놓았다. 이번 신보에 수록된 것은 그의 교향곡 3번과 4번. 원곡의 웅대한 스케일과 아름다운 서정성을 피아노의 명징한 울림 속으로 고스란히 옮겨놓았다. 이미 앞선 14장의 음반을 통해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각광받았던 ㅍ-마티스 듀오의 긴밀한 호흡이 이번 신보에도 변함없이 위력을 드러낸다.



Naxos 8.557670

12위

하이페츠: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편곡 작품들

이수연(바이올린) / 마이클 체르토크(피아노)

한국의 젊은 바이올린 기대주인 이수연이 하이페츠가 바이올린을 위해 편곡해 놓았던 귀에 익은 명선율들을 연주하였다. 디니쿠의 호라스타카토, 쇼팽의 야상곡,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 글록의 정령의 춤, 포스터의 금발의 제니, 드뷔시의 골리웁의 케이크워크,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의 뱀고 등을 1683년에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매혹적인 사운드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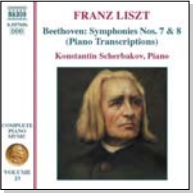
Naxos 8.557404

13위

라이넬케: 하프협주곡, 플루트협주곡

패트릭 갈르와(플루트, 지휘) / 파브리스 피에르(하프, 지휘) / 스웨덴 체임버 오케스트라

갈 라이넬케는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자, 지휘자, 피아니스트 등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던 음악가로 작곡가로도 3편의 교향곡을 비롯하여 오페라, 협주곡 등등의 작품들을 남겼다. 그의 음악은 양식적으로 멘델스존이나 슈만의 그것을 연상시키는데, 본 음반에 수록된 두 편의 협주곡 역시 유려한 선율과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독주자들의 화려한 조절기교를 요구하는 로맨틱 협주곡의 전형을 보여준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정상급 플루트연주자 패트릭 갈르와와 리용 국립음악원 교수인 파브리스 피에르가 지휘와 독주를 번갈아 맡으며 최상의 연주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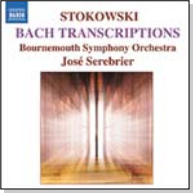
Naxos 8.557856

14위

베토벤-리스트: 교향곡 7번 & 교향곡 8번 (피아노독주편곡)

콘스탄틴 세르바코프(피아노)

베토벤은 막 천재피아니스트로서 빈 음악계의 화제가 되었던 리스트의 연주회에 참석하여 애정 어린 입맞춤으로 이 천재소년을 격려하였다. 이러한 인연 때문이었는지 베토벤이라는 이름은 평생에 걸쳐서 리스트의 음악적 이상으로 남아있었다. 그는 베토벤이 남긴 교향곡 아홉 곡을 피아노용으로 훌륭히 편곡함으로써 자신의 깊은 존경심을 예술로 승화시켰었다. 베토벤의 우수한 음악적 구조에 피아노에 대한 리스트의 천부적인 감각이 더해진 이 편곡들에 나소스의 간판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한 1983년 라흐마니노프 콩쿠르 우승자 콘스탄틴 세르바코프의 뛰어난 기량이 덧붙여졌다.



Naxos 8.557883

15위

바흐/헨델/퍼셀: 스토코프스키 편곡作品集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 호세 세레브리에르

바로크 시대의 인기곡들이 위대한 지휘자 스토코프스키의 색채적인 관현악기법을 통해 한층 화려한 모습으로 재탄생하였다. 이미 스토코프스키가 편곡한 전람회의 그림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호세 세레브리에르가 다시금 지휘봉을 잡았다. G선상의 아리아, 양들은 편히 풀을 뜯고, 파사칼리아와 푸가, 메시아 중의 전원교향곡, 디도와 아에네아스 중 디도의 탄식 등등 수록.



Naxos 8.110996

16위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베토벤: 바이올린협주곡

에후디 메뉴인 /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 빈 필하모닉, 루체른 페스티벌

1947년 루체른 페스티벌을 지휘하여 메뉴인을 반주한 푸르트벵글러의 베토벤 바이올린협주곡은 거장의 전후 첫 스튜디오 레코딩이자 자신의 대표적인 협주곡 녹음의 하나로 손꼽히는 명연이다. 1948년 빈 필을 지휘한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역시 혈기와 기백으로 가득한 화려했던 연주다.



Naxos 8.557754

17위

영국 튜바 협주곡 (그렉스, 스탬토, 본 윌리엄스, 골랜드)

제임스 고를레이(튜바) / 로알 발레 신포니아 / 개빈 서덜랜드

오케스트라의 저음을 묵묵히 담당하던 튜바가 무대 전면에 화려하게 나섰다. 네 명의 20세기 영국 작곡가들이 남긴 튜바 협주곡들을 통해 이 들팍한 악기의 새로운 매력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BBC 심포니를 거쳐 현재 취리히 오페라 수석을 맡고 있는 제임스 굴리가 연주를 맡았다.



Naxos 8.557780

18위

도니제티: 가곡집

데니스 오닐(테너) / 잉그리드 서저너(피아노)

벨칸토 오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도니제티. 그는 오페라 외에도 다수의 가곡들을 작곡하였다. 전형적인 나폴리 민요풍의 노래들에서부터 설렘, 위고, 메타스타시오 등의 시에 곡을 붙인 예술가곡에 이르기까지 오페라에서 맛보지 못했던 작곡가의 일면을 만나게 된다.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의 간판 스타인 데니스 오닐이 벨칸토의 진수를 들려준다. 성악도들의 필청 음반



Naxos 8.550533-34

19위

말러: 교향곡 8번 '천인의 교향곡'

솔리스트들 / 바르샤바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안토니 비트

8번의 녹음만을 남겨둔 채 오래도록 미완으로 남아있었던 낙소스의 말러 교향곡 사이클이 드디어 완성되었다. 사이클의 절반이상(2,3,4,5,6번)을 책임졌던 폴란드의 대표지휘자 안토니 비트가 지휘봉을 잡았고, 기존의 폴란드 국립방송교향악단이 아닌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악단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



Naxos 8.557658

20위

아르헨티나의 기타음악 2집

빅토르 빌라다고스(기타)

아르헨티나의 저명한 현대 작곡가들의 기타 작품들을 다루고 있는 시리즈의 두 번째 음반. 피아졸라를 추모하는 푸홀의 작품 <뱀고연주자의 죽음을 위한 엘레지>, 페라의 <교양이 춤>, 크리올로 왈츠 리듬이 인상적인 모스카르디니의 <돈나 카르멘> 등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향토음악의 특징적인 리듬과 선율을 살린 개성만점의 작품들이 망라되었다.



Naxos 8.557760

21위

타케미츠: 영혼의 정원, 고독의 소리, 현을 위한 세 개의 영화음악, 꿈꾸는 시간, 오각정원에 내려온 새들

마린 알소프 /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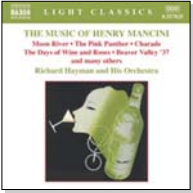
위대한 일본 작곡가 토루 타케미츠의 사망 10주기 기념음반. 그는 서구권의 전유물이었던 클래식 음악계에 동양의 음악적 잠재력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던 인물이었다. 본 음반에는 20대 작품인 '고독의 소리'에서부터 사망 2년 전에 완성된 '영혼의 정원', 그리고 작곡가의 가장 인기작품인 '오각 정원에 내려온 새 떼' 까지 대표적인 관현악곡들이 엄선되었다. 현존 최고의 여류 지휘자이자 현대음악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내왔던 마린 알소프가 지휘를 맡았으니 음반에 대한 신뢰감은 한층 커진다.

22위

맨시니: 헨리 맨시니의 음악들 (리처드 헤이먼 편곡)

리처드 헤이먼과 그의 오케스트라

4번의 아카데미상과 20번의 그래미상을 수상했던 할리우드 영화음악의 대부 헨리 맨시니. 피터 건, 문 리버, 펄크 팬터, 아기 코끼리의 걸음 등등 그의 주옥같은 선율들을 중후한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만난다.



Naxos 8.557825



Naxos 8.557586

23위

다울랜드: 류트 작품집 1(판타지 1-6번 외)

나이젤 노스(류트)

윌리엄 셰스퍼어와 동시대 인물인 다울랜드는 당시 열병처럼 번졌던 펠랑콜리를 온 몸으로 실천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류트송들과 류트를 위한 독주곡들에서는 눈물이 마른 날이 없었다는 그의 과도한 감수성을 아련히 느끼게 된다. 영국을 대표하는 류트 연주자이자 앤드류 맨츠와 더불어 로마네스카의 멤버로 활약했던 나이젤 노스의 낙소스 데뷔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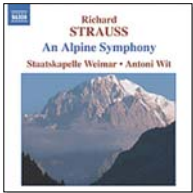
Naxos 8.557920

24위

비발디: 사계, 바이올린협주곡 Op.8 Nos 5,6

조량린(vn) / 세종

줄리아드의 명교사 강효 교수가 조직한 정상급 체임버 앙상블이자 아스펜 음악제와 대관령 국제음악페스티벌의 상주 악단으로 맹활약 중인 세종(구 세종 솔로이스츠)의 낙소스 데뷔음반. 살로넨과 협연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협주곡으로 그라모폰상을 수상했었던 대만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량린과 함께 비발디의 사계를 녹음하였다.



Naxos 8.557811

25위

R.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

바이마르 슈타츠크펠레 / 안토니 비트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

알프스의 장엄한 장관, 청년시절 등산의 추억, 자연을 통한 해방을 추구했던 니체의 사상들을 대편성의 관현악으로 극적으로 표현했던 R 슈트라우스의 대표적인 관현악절작인 알프스 교향곡. 낙소스를 대표하는 마에스트로인 안토니 비트가 한때 작곡가 자신이 지휘하기도 했던 독일의 유서깊은 오케스트라인 슈타츠크펠레 바이마르를 지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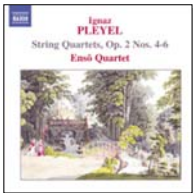
Naxos 8.557779

26위

벨리니: 가곡집

데니스 오닐(테너) / 잉그리드 서저너(피아노)

벨칸토 오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벨리니. 그는 오페라 외에도 다수의 가곡들을 작곡하였다. 12세 때의 작품인 '나비'에서 드라마틱한 구성의 3악장 아리아인 '돌아오라 착한 처녀'에 이르기까지 오페라에서 맛보지 못했던 작곡가의 또 다른 일면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의 간판 스타인 데니스 오닐이 벨칸토의 진수를 들려준다. 성악도들을 위한 필청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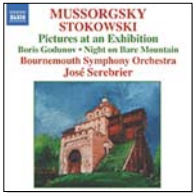
Naxos 8.557497

27위

플레엘: 현악사중주 Op. 2, Nos. 4-6

엔조 현악사중주단

하이든의 제자였던 프라이엘은 스승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둘 정도로 당대에 명망높았던 작곡가였다. 그의 현악사중주는 소년 모차르트를 감탄케했을 정도였는데, 하이든의 작품에 비견될만큼 해맑고 싱그러운 매력이 음반 전체에 걸쳐 가득하다. 미국의 젊은 기대주인 엔조 사중주단이 연주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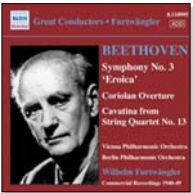
Naxos 8.557645

28위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민둥산의 하룻밤, 보리스 고두노프 단편(스토코프스키 편곡)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 호세 세레브리에르

Gramophone Disc of the Month (2005년 어워드 호) Classicstoday 10/10
“스토코프스키의 기술적이고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빛나는 레코딩”
- 에드워드 그린필드 from Gramophon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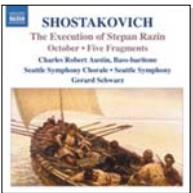
Naxos 8.110995

29위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코리올란 서곡, 카바티나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 베를린 필하모닉 & 빈 필하모닉

1947년에 녹음된 코리올란 서곡은 겨장이 남긴 유일한 동곡의 스튜디오 레코딩이고, 영웅 교향곡은 1947년 11월에 녹음된 HMV 레코딩을 복각한 것이다. 1940년에 녹음된 카바티나는 베토벤 현악사중주 13번의 5악장을 관현악으로 편곡하였다.



Naxos 8.557812

30위

쇼스타코비치: 스테판 라친의 처형, 10월, 5개의 관현악 소품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 / 제러드 슈워츠

쇼스타코비치의 특징적인 관현악 작품 셋을 수록하였다. 5개의 소품은 교향곡 4번의 작곡 과정에 만들어진 습작 성격의 작품. 1917년 혁명 50주년 기념작인 스틸 넘치는 교향시 <10월>은 작곡가 최만 년에 완성된 관현악곡의 하나. 17세기 코사크 영웅을 다룬 <스테판 라친>은 바리톤 독창, 혼성합창을 수반하는 대편성의 작품으로 감성적인 러시아 민요 선율과 강렬한 관현악의 포효가 교차하는 드라마틱한 작품이다.

MDG Best 10



MDG 341 1303-2

1위

모차르트: 건반작품집 Vol. 3

(Sonatas K311 & K309, Adagio K356, 12 Variations K179 & K354)

지그베르트 람페(하프시코드, 클라비코드, 포르테피아노)

호평을 이끌어온 지그베르트 람페의 모차르트 시리즈, 그 세 번째 음반.

모차르트 서거 250주기의 서두를 장식하는 람페의 최신보, 하프시코드, 클라비코드, 포르테피아노를 번갈아가며 작곡가의 소나타와 변주곡을 정경적으로 연주하였다. 옛 건반악기들의 고아한 울림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MDG 603 13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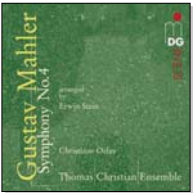
2위

온슬로우: 현악오중주 Op.38 & 67

퀸텟 모멘토 무지칼레

실내악 애호가들을 위한 온슬로우의 세 번째 선율

영국 혈통의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온슬로우는 모두 70여 편에 달하는 실내악 작품들을 남겼다. 국내 실내악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기존 두 음반에 이어 이 작곡가의 세 번째 실내악 작품집이 등장하였다. 세컨드 첼로 대신 더블베이스를 덧붙여 관현악에 버금가는 알차고 목직한 사운드를 추구한 Op.67에 주목하시라.



MDG 603 1320-2

3위

말러: 교향곡 No.4 arr. for chamber ensemble

크리스티안 월체(소프라노) / 토마스 크리스티안 앙상블

실내악 앙상블로 만나는 말러 교향곡 4번.

브루크너 교향곡 7번의 실내악 버전으로 애호가들의 호평을 받았던 토마스 크리스티안 앙상블이 말러에 도전하였다. 작곡가의 교향곡 중 가장 순정의 아름다움을 지닌 교향곡 4번이 에르빈 슈타인의 적절한 편곡을 통해 한층 농밀한 섬세함을 발산한다. 정상급 소프라노 월체의 투명한 음성이 음반의 가치를 한층 높인다.



MDG 301 1399-2

4위

The Unbelievable Mozart: Special Box Set

콘소르티움 클라시쿰

모차르트의 희귀작품들을 꾸준히 발굴, 연주해온 콘소르티움 클라시쿰의 <?모차르트?> 시리즈 7편을 스페셜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이미 레프트와 추천음반, 포노포럼 만점, 예코 클래식 추천음반 등에 선정되면서 호평을 받았던 이 값진 음반들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필립스의 거창한 모차르트 에디션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작곡가의 희귀작품들 (그중 일부는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의심받는 것들도 포함되지만)을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탄생 250주년을 맞아 이 땅의 모차르티안들에게 찾아온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MDG 619 13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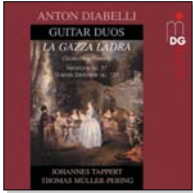
5위

파가니니: 카프리스 Op.1 (arr. For Solo Saxophone)

라프 헤케마(색소폰)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파가니니가 작곡한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24개의 카프리스酬 이 악기를 위한 작품들 중 연주의 난해함에 있어서 최선도를 다룬 난곡이다. 특히 마지막 24번은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루토스와프스키 등의 작곡가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안겨주었던 유명한 작품. 이 작품을 색소폰의 관능적인 음색으로 듣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MDG 603 1389-2

6위

디아벨리: 두 대의 기타를 위한 작품들(Grand Serenade 외)

요하네스 타페르트 & 토마스 뮐러 페링(기타)

베토벤의 변주곡을 통해 낯익은 이름이지만, 작곡가로서 디아벨리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19세기 초반의 대표적인 기타음악 작곡가였던 그의 진면목을 확인하게 된다. 유명한 로시니의 '도둑 까치' 서곡의 기타 듀오 편곡, 예코효과를 활용한 세레나데 등의 흥미진진한 작품들을 담았다. 바이올린의 스트라디바리우스에 비견될 만한 유명한 기타제작자였던 슈타우퍼의 오리지널 악기 둘을 이번 녹음에 사용하였다.



MDG 301 1415-2

7위

그라냐니: 실내악作品集 (바이올린, 클라리넷과 두 대의 기타를 위한 사중주/ 플루트, 바이올린, 기타를 위한 트리오/ 기타이중주/ 플루트,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두 대의 기타를 위한 육중주)

콘소르티움 클라시쿰

기타음악과 실내악애호가들이라면 이 음반에 주목하시라. 베토벤과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재기 발랄한 작곡가 필립포 그라냐니가 작곡한 기타를 포함하는 특징적인 실내악 작품들을 음반에 담았다. 단순한 기타와 현악기 조합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목관악기들과 호흡을 맞추으로써 이 우아한 발현악기의 또 다른 매력을 한껏 구가하였다. 그동안 왜 이 작품들이 주목받지 못했는지 의아할 정도로 사랑스러운 작품들.



MDG 308 1393-2

8위

플루트의 물결

14 베를리너 플루티스텐 (14 베를린 플루티스트)

14 베를리너 플루티스텐은 그 이름 그대로 베를린에 기반을 둔 일급 오케스트라들의 플루트주자들이 모여 결성한 비상설 앙상블로, 베를린 필의 수석이자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안드레아스 블라우가 예술 감독을 맡고 있다. 피콜로에서 테플베이스플루트에 이르기까지 플루트족의 모든 악기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들어내는 독특한 소노리티가 귀에 익은 애청곡들을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탈바꿈 시켜놓았다. 플루트 애호가들의 필청반이며, 오디오판일용으로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MDG 329 1387-2

9위

칼리보다: 교향곡 No.3 & 서곡 No.8 etc.

디에터 클렉케(클라리넷) / 라도반 블라트코비츠(호른) / 함부르크 심포니커 / 요하네스 모에수스

19세기 보헤미아 출신 작곡가의 독특한 관현악작품들

칼리보다(1801-1866)는 스메타나나 드보르작에 한참 앞서서 보헤미아 민속주의 음악의 기틀을 준비했던 작곡가이다. 그의 교향곡에는 슬라브 민속의 영향과 동유럽 특유의 화성적 색채가 느껴지며, 호른 클라리넷을 위한 협주곡 풍의 두 작품에서도 이 지역의 우수한 관악음악 전통을 엿볼 수 있다.



MDG 341 1304-2

10위

모차르트: 건반작품 전집 4집

(소나타 K333, K284, 전주곡과 푸가 K394, 건반소품 K15mm, 15oo, 15 pp, 15qq, 건반소품 K626, '알바의 아스카니오' 중 발레)

지그베르트 람페 (포르테피아노, 클라비코드, 하프시코드)

포르테피아노, 클라비코드, 하프시코드의 세 종류의 옛 건반악기들을 동원하여 모차르트의 건반 작품 전체를 탐험 중인 독일의 중견 건반주자 지그베르트 람페, 이번 네 번째 음반에서는 모차르트가 9세 전후에 작곡한 것으로 알려진 다섯 개의 건반소품 연작 K15가 최초로 녹음되었다. 이 값찍한 소품들은 어린 소년의 천진함과 음악적 천재성을 함께 드러낸다.

Melodiya Best 15



MEL CD 10 00665

1위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전곡 (2CD)

Bolshoi Theatre Orchestra/ Gennadi Rozhdestvensky

80년대 후반기 라이선스 LP로 소개되어 많은 국내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았던 로제스트벤스키/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호두까기 인형 전곡 녹음이 CD로 다시금 등장하였다. 볼쇼이 극장 최고의 전성기를 담은 소중한 기록답게, 금관의 빛나는 울림을 위시한 오케스트라의 탄탄한 앙상블이 러시아적인 해석의 극치를 보여준다. 다재 다능함으로 대변되는 로제스트벤스키이지만 그의 섬세한 재능은 발레 음악에서 특히 날카롭게 빛난다.



MEL CD 10 00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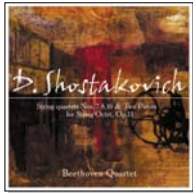
2위

러시아인 피아노 스쿨 Vol.4 – 에프게니 키신

라흐마니노프: 연습곡 / 스크리아빈: 전주곡 / 프로코피예프: 덧없는 환상 / 키신: 인벤션

러시아 피아노 스쿨이 낳은 최고의 히트 상품을 꼽으라면 단연 키신의 얼굴이 떠오를 것이다. 그가 신동 피아니스트로 소련 인민들의 사랑을 받던 시절에 남겼던 귀한 연주를 담았다. 키신이 13살과 15살 되던 해에 가졌던 두 실황을 엮은 것. 애초에 음반을 목적으로 기록된 음원이 아닌 관게로 80년대 중반 녹음임에도 모노라는 황당한 오디오 포맷이나, 키신이 만들어내는 포랑포랑한 터치를 느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음향 해상도다. 음반 말미에 수록된 키신의 자작곡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다.

쇼스타코비치는 교향곡과 현악사중주 양쪽 모두를 15곡씩 완성하였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심포니스트로 대중적인 유명세를 누리고 있으나, 현악사중주 분야에서도 그는 단연코 지난 세기의 가장 중요한 작곡가였다. 교향곡들에서 트라빈스키가 작곡가의 술 메이트 역할을 했었다면, 현악사중주 분야에서 같은 역할을 했던 이들이 바로 베토벤 현악사중주단이다. 이들은 작곡가의 현악사중주 중 1번과 15번을 제외한 13편의 초연을 맡았었다.(그중 6곡은 이 단체 전체 또는 멤버 개인에게 헌정된 곡이며, 피아노5중주 역시 이들과 작곡가 자신의 피아노로 초연되었다.) 1923년 결성된 이 사중주단의 창단 멤버는 드미트리 치가노프(1st vn), 바실리 쉬린스키 (2nd vn)와 세르게이 쉬린스키(vc) 형제, 그리고 바딤 보리스프스키(va)였다. 1962년 보리스프스키가 발병한 이후에는 그의 제자 표도르 드루지닌이 그 뒤를 이었고, 1965년 바실리 쉬린스키가 사망했을 때 공식해산을 결정했으나, 쇼스타코비치의 간곡한 부탁 등의 이유로 치가노프의 제자 니콜라이 자바프니코프를 새 멤버로 받아들여 활동을 계속해나갔다. 1978년 치가노프의 발병이후에도 사중주단의 명맥은 계속 이어졌으나,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80년대 초반 마침내 이 위대한 현악사중주단은 음악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사라져갔다. 멜로디야는 앞으로도 이들이 60년대에 녹음한 쇼스타코비치의 현악사중주들을 계속해서 발매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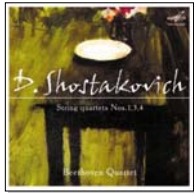
MEL CD 10 00861

3위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7번, 8번, 10번,
현악사중주를 위한 2개의 소품*

베토벤 현악사중주단,
코미타스 현악사중주단*
(1961년, 65년, 69년 녹음)



MEL CD 10 00860

7위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1번, 3번, 4번

베토벤 현악사중주단
(1961년, 1965년 녹음)



MEL CD 10 00652

4위

차이코프스키: 에브게니 오네긴

Valentina Petrova / Galina Vishnevskaya / Larisa Avdeyeva / Evgeni Belov / Sergei Lemeshev / Ivan Petrov / Georgi Pankov / Igor Mikhailov / Andrei Sokolov / Chorus & Orchestra of Bolshoi Theater / Boris Khaikin

위대한 '에브게니 오네긴'의 음반이 정식으로 부활하였다. 이미 오페라 도르, 미토 등의 부틀렉 레이블을 통해 러시아 오페라 애호가들을 열광시켰던 전설의 음반이 멜로디아의 정식음반으로 새롭게 재탄생하였다. 로스트로포비치의 부인이자 50년대 소련을 대표하였던 디바, 갈리나 비쉬네프스카야의 타티아나, 완벽에 가까운 렌스키를 재현한 세르게이 레메셰프, 볼쇼이를 대표하던 위대한 베이스 이반 페트로프의 그레민 공작 등 50년대 볼쇼이의 황금기를 주름잡았던 전설적인 명가수들의 열연에 소련 오페라의 원로급 지휘자 보리스 하이킨의 노련한 리드가 더해졌다.

마리아 그린베르그(1908~1978)는 마리아 유디나와 더불어 20세기 중반기를 대표하던 소련의 여류 피아니스트였다.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명교수 블루멘펠트와 이글노프를 사사하였고, 1935년 전 소련 콩쿠르에서 수상하면서 본격적인 연주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작곡가는 베토벤이었다. 극심한 냉전체제하에서 서구에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았으나, 수차례에 걸친 베토벤 치클루스를 통해 60년대의 주요한 베토벤 해석가로 명성이 높았다. CD로 그의 연주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기에 구전되는 명성만 남았었지만, 멜로디아를 통해 다시금 복원되기 시작한 베토벤 소나타 전집을 통해 그에 대한 재평가의 길이 활짝 열렸다. 여성의 것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강렬한 터치로 연출해낸 베토벤의 초기 소나타들을 만나 보시라.



기타 베스트 음반들

Dacapo



DACAPO 8.226033

하메릭: 레퀴엠, 코랄 심포니 7번

란디 스테네, 소프라노 / 토마스 다우스가르드 /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과 합창단

지금은 잊혀진 이름이지만 아스게르 하메릭(1843-1923)은 당대에 꽤나 국제적인 명성을 누렸던 덴마크 작곡가였다. 베를리오즈를 사사했던 그는 피바디음악원장으로 미국 음악계의 발전에 일조를 했었다. 그가 미국시절 초연한 레퀴엠은 대단히 인상적인 작품. 특히 유명한 평성가의 선율을 차용한 '진노의 날' 과 스승 베를리오즈의 작품을 빼닮은 '나팔소리' 가 흥미롭다. 합창음악의 표현력을 한껏 확장해놓은 코랄심포니 7번 역시 후기낭만시대 합창음악 애호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만한 작품이다.



DACAPO 8.226039

뇌르고르드: 하프와 체임버 앙상블을 위한 작품들

티네 레홀링, 하프 / 카이자 로제 / 에스비에르그 앙상블

페르 뇌르고르드는 카를 닐센 이후 가장 중요한 덴마크 출신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하프는 뇌르고르드의 작품세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악기. 그는 낭만음악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것과 또 다른 시각에서 이 악기의 폭넓은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는 하프의 원조적이고도 단순한 속성에 주목하였다. 이 음반에는 하프 솔로를 위한 그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과 더불어 다양한 악기조합 속에서 드러나는 이 악기의 색다른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실내악 작품들이 담겨있다.



DACAPO 8.226510

닐스 마르틴센 : 몬스터 심포니

오르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 미셸 타바크닉

덴마크의 젊은 작곡가 닐스 마르틴센이 들려주는 새로운 음악세계. 심포니 리믹스라는 부제의 몬스터교향곡에서는 제목에 걸맞은 그로테스크한 생명력이 가득 넘치며, 그림의 미학을 음악으로 나타낸 관현악을 위한 파노라마 역시 범상치 않은 작품이다. 작곡가의 신작 오페라 '고해실(告解室)'에 대한 컴팩트한 형태의 관현악 예고편이 이 독특한 음반의 대미를 장식한다.

Proprius



PRSACD 7079

Jazz at the Pawnshop Vol.2

오디오 마니아들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아온 Jazz At The Pawnshop의 두 번째 작품으로 1976년 12월 6일과 7일에 걸쳐 녹음된 아르네 돔네루스 퀴텐의 숨겨진 레코딩을 담고 있다. 음악 팬들에게 친숙한 'Over The Rainbow' 'It Don't Mean A Thing' 등 선곡면에 있어서 전작을 능가한다. 또한 클라리넷과 색소폰의 풍성한 블로잉, 그리고 더블 베이스의 은근한 울림을 잡아낸 탁월한 레코딩은 마치 바로 옆에서 연주하는 듯 환상적인 생동감과 선명함을 선사한다.



PRSACD 2036

댄싱 바흐 (Dancing Bach)

스톡홀름 바로크 오케스트라

스톡홀름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바흐 작품 컬렉션. 소편성으로 실내악적인 정지함을 강조한 두 편의 관현악 모음곡 외에도 솔로 악기를 위한 바흐의 인기작들을 색다른 악기조합을 통해 연주하고 있다. 바순으로 연주하는 무반주 첼로 모음곡들의 단편들이나, 비올라로 연주하는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비올라와 바순 이중주로 연주하는 인벤션들이 바흐 음악의 무궁무진한 음악적 변화가능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SCD 1137

비르기트 닐슨이 노래하는 유명 성가곡들

구노: 아베마리아, 프랑크: 생명의 양식, 아당: 오 홀리 나이트, 아담스: 홀리 시티, 맨슨: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루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외

2005년 12월 25일 세상을 떠난 스웨덴의 세계적인 바그너 소프라노 비르기트 닐슨. 영원한 이슬데, 영원한 브뤼헨데로 세인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이 위대한 소프라노가 노래한 귀에 익은 성가곡들이 이 음반에 담겨있다. 1963년에 발매된 EP와 1977년에 발매된 LP를 편집한 것으로 CD포맷으로는 처음 선보이는 귀한 음원들이다.

Wigmore Hall Live



WHLive 0005

헨델, 비발디, JS 바흐: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외

Pavlo Beznosiuk & Rachel Podger, vn / Academy of Ancient Music

“이 콘서트를 통해 야기된 열정, 흥분, 즐거움의 강도는 분명 특별한 것이었다.” -The Times- 호그우드와의 수많은 명연들을 통해 국내 고음악 애호가들에게도 낯익은 이름인 고음악 아카데미. 이들의 최근 모습을 이 실황음반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2005년 1월 24일의 실황으로 헨델의 합주협주곡 Op.6-1,10, 비발디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RV524,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RV548, 바흐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 1043을 수록하였다. 국내 애호가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레이첼 포저가 악단의 리더 파블로 베즈노시우크와 함께 솔로를 담당하였다.



WHLive 0001

베토벤: 클라리넷 트리오 Op.11 / 멘델스존 : 팔중주 Op.20

Nash Ensemble

2005년 10월 Gramophone Editor's Choice

“내쉬앙상블은 영국의 최정상급의 체임버 앙상블이다.” -The Times-

2005년 3월 19일 위그모어 홀에서 열렸던 내쉬앙상블의 결성 40주년 기념 콘서트 실황. 영국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이자 여러 우수한 젊은 연주자들의 등용문 역할을 했었던 내쉬앙상블의 저력을 베토벤의 화려한 클라리넷 트라오와 멘델스존의 장대한 팔중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HLive 0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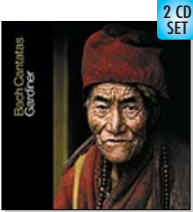
슈베르트: 백조의 노래, 괴테 가곡, 하프너의 노래 외

Peter Schreier, te / Andras Schiff, pf

“슈라이어와 쉬프는 이전의 그 어떤 아티스트들 보다 관객들을 슈베르트 가곡의 세부로 몰입하게 만들었다.” -The Independent-

얼마전 우리나라에서도 파란만장한 연주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고별콘서트를 가졌었던 슈라이어. 1991년 7월 1일 안드라슈 쉬프와 함께했던 슈베르트의 '백조의 노래' 는 이 위대한 리트가수의 마지막 뒷모습을 다시금 떠오르게 한다. 슈라이어가 들려주는 관록의 가창은 물론, 리트 반주자로서도 당시 최고의 주가를 올렸던 쉬프의 안정된 반주도 출중하다.

Soli Deo Gloria



SDG 115

JS 바흐 – 칸타타 19집

The Monteverdi Choir / The English Baroque Soloists / Sir John Eliot Gardiner

[CD1] 주현절(Epiphany) 후 두 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

BWV155 Mein Gott, wie lang, ach lange 나의 하나님여, 얼마나 오래도록

BWV3 Ach Gott, wie manches Herzeleid 아아 하나님여, 마음의 고통이 많사오니

BWV13 Meine Seufzer, meine Tränen 나의 한숨, 나의 눈물

Joanne Lunn(sop) / Richard Wyn Roberts(alt) / Julian Podger(te) / Gerald Finley(bass)

[CD2] 주현절(Epiphany) 후 네 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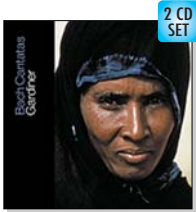
BWV26 Ach wie fluchtig, ach wie nichtig 아아 얼마나 덧없고 얼마나 허무한가

BWV81 Jesus schlaft, was soll ich hoffen? 예수 잠드시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라

BWV14 War Gott nicht mit uns diese Zeit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BWV227 Motet – Jesu, meine Freude 예수는 나의 기쁨

Joanne Lunn(sop) / Katharine Fuge & William Towers(alt) / Paul Agnew(te) / Peter Harvey(bass)



SDG 118

JS 바흐 – 칸타타 21집

The Monteverdi Choir / The English Baroque Soloists / Sir John Eliot Gardiner

[CD1] 사순절(Quinquagesima)을 위한 칸타타

BWV22 Jesus nahm zu sich die Zwölfe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모으셨도다
BWV23 Du wahrer Gott und Davids Sohn 그대 진실한 하나님이자 다윗의 아들이여
BWV127 Herr Jesu Christ, wahr' Mensch und Gott 진실한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BWV159 Sehet, wir gehn hinauf gen Jerusalem 보라, 우리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Ruth Holton(sop) / Claudia Schubert(alt) / James Oxley(te) / Peter Harvey(bass)

[CD2] 성지주일(Palm Sunday), 사순절 3주일(Oculi), 수태고지(Annunciation)를 위한 칸타타

BWV182 Himmelskonig, sei willkommen 하늘의 왕이시여, 어서 오소서
BWV54 Widerstehe doch der Sunde 자, 죄악과 싸우라
BWV1 Wie schon leuchtet der Morgenstern 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 새벽인가

Malin Hartelius(sop) / Nathalie Stutzmann(alt) / James Gilchrist(te) / Peter Harvey(bass)



SDG 121

JS 바흐 – 칸타타 26집

The Monteverdi Choir / The English Baroque Soloists / Sir John Eliot Gardiner

[CD1] 성령강림절을 위한 칸타타

BWV172 Erschallet, ihr Lieder, erklinget, ihr Saiten /노래소리여, 울려 퍼지라
BWV59 Wer mich liebet, der wird mein Wort halten I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지니 I
BWV74 Wer mich liebet, der wird mein Wort halten II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지니 II
BWV34 O ewiges Feuer, O Ursprung der Liebe/ 오 영원한 불길, 사랑의 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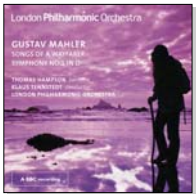
Lisa Larsson(sop) / Nathalie Stutzmann & Derek Lee Ragin(alt) / Christoph Genz(te) / Panajotis Iconomou(bass)

[CD2] 성령강림절 이후 첫 월요일을 위한 칸타타

BWV173 Erhohes Fleisch und Blut /고귀한 살과 피
BWV68 Also hat Gott die Welt geliebt /이토록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도다
BWV174 Ich liebe den Hochsten von ganzem Gemute/나 지극히 높은 자를 사랑하노라

Lisa Larsson(sop) / Nathalie Stutzmann(alt) / Christoph Genz(te) / Panajotis Iconomou(bass)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 0012

말러: 교향곡 1번 〈타이탄〉,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토마스 햄슨(bar) /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클라우스 텐슈테트

영원한 말러리안 클라우스 텐슈테트가 완성한 또 하나의 말러 교향곡 1번. 지금껏 해적반으로도 출시되지 않았던 값진 음원이다. 1985년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이번 신보는 웬지 밋밋했던 런던 필과의 스튜디오 녹음(1977년)과 뜨거웠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느낌을 주었던 시카고 심포니와의 실황(1990년) 사이의 중용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연주다. 이 교향곡의 모태가 되었던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가 정상급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노래로 함께 수록되었다.

하이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Die Schoepfung)

루치아 포프 (sop) / 안소니 롤프 존슨 (te) / 벤자민 렉슨 (bass) /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합창단 / 클라우스 텐슈테트 (condu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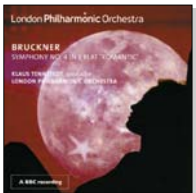
1984년 2월 19일 로얄 페스티벌 홀 실황

“하이든의 걸작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는 외형적인 규모와 음악적 원대함에서 하이든의 작품들 중에서 전례가 없는 대작이다. 태초의 빛의 전율에서 여러 동물들을 나타내는 음악적 표현들의 유머러스함까지, 합창단의 뛰어난 활약과 하이든의 건설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통해 클라우스 텐슈테트와 일급 솔리스트들은 이 레코딩에 신선한 생기를 불어일으켰다.” Edward Greenfield from 〈The Guardian〉

브루크너: 교향곡 4번 〈로맨틱〉 (Hass Edition)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클라우스 텐슈테트

이 음반에 앞서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음반으로 발매되었던 텐슈테트의 브루크너 교향곡 4번은 모두 다섯 종류의 음원이었다. 최초로 음반으로 선보이는 이 연주는 지금까지 음원들 중 가장 최근의 기록에 해당하는 1989년 12월 14일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의 실황을 옮긴 것이다. 사용한 판본은 이전 음원들과 동일한 1878/80 하스판. 값만한 템포로 스케일 큰 음악을 구사했던 거장의 특징이 여실히 발휘된 수연으로, 파이낸셜 타임즈는 다음과 같이 이날의 연주회에 찬사를 보냈다. “거대한 클라이맥스 다다르는 순간 연주의 진실한 파위는 완전히 압도할 정도다. 텐슈테트는 이 시대의 몇 안 되는 진정한 거장이다.” 또한 이 음반은 최근 사망한 악단의 수석 혼 주자 니콜라스 부슈를 추모하는 음반이기도 하다.



LPO 0014

Im Takt Der Zeit(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자체 레이블)



BPH 0608

말러: 교향곡 6번 ‘비극적’

지휘- 사이먼 래틀

버밍엄 심포니를 영국 최정상급의 악단으로 끌어올리면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사이먼 래틀이 1987년 11월 베를린 필과 첫 만남을 가졌던 역사적인 콘서트 실황. 이 때 연주했던 말러 교향곡 6번의 대성공으로 그 뒤에도 정기적으로 베를린 필의 초대를 받게되었고, 마침내 아바도의 뒤를 이어서 이 악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하기에 이른다. 기존 EMI를 통해 발매되었던 같은 작품의 음반보다 2년 앞서서 연주되었던 것으로, 보다 빠른 템포와 라이브 특유의 팽팽한 긴장감과 뜨거운 열기를 함께 담은 래틀 최고의 말러 연주. 2악장과 3악장의 배치를 맞바꾼 점도 특기사항이다.



BPH 0606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지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군들라 야노비츠(sop) / 지글린데 바그너(alt) / 루이지 알바(te) / 오토 비너(bar) / 성 헤드비히 성당합창단 / RIAS 실내합창단

1963년 10월 15일은 2차 대전 중의 공습으로 파괴된 이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재건축된 베를린 필의 본거지인 필하모니칼의 재개관기념 콘서트가 열렸던 날이다. 이날 콘서트에서 연주되었던 카라얀의 합창 교향곡은 그 동안 모노로 불법 녹취되었던 해적음반이 나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스테레오로 녹음된 음원이 최초로 음반화되었다. 당시 카라얀의 총애를 받던 소프라노 군들라 야노비츠, 베테랑 알토 지글린데 바그너, 로시니 테너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루이지 알바, 바이에른 슈타츠오퍼의 베테랑 바리톤 오토 비너의 화려한 독창진이 눈길을 끈다.



BPH 0612

JS 바흐: 관현악모음곡 1, 3번,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1060

지휘- 니콜라스 아르농쿠르

바이올린 - 토마스 체헤트마이어 / 오보에 - 알브레흐트 마이어

베를린 필과 더불어 브람스나 브루크너와 같은 로맨틱 교향곡들을 꾸준히 녹음해왔던 아르농쿠르가 자신의 교향곡과 같은 작곡가인 JS 바흐의 작품들로 되돌아왔다. 모던 오케스트라의 대명사와 같은 베를린 필에 특유의 절충주의적인 접근법을 접목시킴으로써 대단히 독특한 풍미의 바흐를 만들어내었다.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이중협주곡에는 아르농쿠르와 좋은 호흡을 보여왔던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토마스 체헤트마이어와 베를린 필의 오보에 수석인 알브레흐트 마이어가 독주자로 참여하였다.

KKV Best



FXCD 221

KARI BREMNES: NORWEGIAN MOOD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싱어 송 라이터 카리 브렘네스의 세계시장 데뷔작. 각각의 곡들에서 느껴지는 뛰어난 작곡실력도 돋보이지만, 재즈, 포크, 록 등 다양한 음악을 편안하면서도 무리 없이 소화해낸 카리 브렘네스의 재능이 더욱 빛난다. 어쿠스틱 악기들의 편안한 울림과 축축한 보컬이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앨범.

*KKV 판매 차트 1위



FXCD 178

SUSANNE LUNDENG: ATTESYN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수사네 룬당의 최고의 앨범!

현재 국내에서 발매된 앨범은 절판된 상태이며, 수입음반으로만 들을 수 있다. 가슴 저미도록 슬픈 연주곡 '당신의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 음악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FXCD 155

ANNE VADA: OY I LIVET

천상의 목소리를 지녔다는 노르웨이 여가수 안네 바다의 국내 최고의 히트 앨범. 스캇송 'EROS' 는 국내 음악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 국내 발매되었던 라이선스는 절판이며 오리 지날 수입만 소개된다. ANNE VADA(안네 바다) / OY I LIVET 천상의 목소리를 지녔다는 노르웨이 여가수 안네 바다의 국내 최고의 히트 앨범. 스캇송 'EROS' 는 국내 음악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 국내 발매되었던 라이선스는 절판인 상태.



FXCD 220

KATIA CARDENAL: BRAZOS DE SOL

니카라과 출신의 여성 보컬리스트 카티아 카르데날의 96년도 앨범. 그녀의 자작곡과 실비오 로드리게스와 같은 남미 유명 뮤지션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 연주에 실린 서정적인 보컬은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은 음식처럼 담백함을 전한다.



FXCD 293

KARI BREMNES: OVER EN BY

스칸디나비아의 '노래하는 여류 시인' 노르웨이 가수 특유의 부드럽고 감각적인 미성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며 히트켈리히에서 모두 8장의 CD를 냈던 매혹적인 가수 카리 브렘네스가 내놓은 9번째 앨범. 가수이자 노래 작곡가인 그녀는 이 앨범에서도 자신이 직접 모든 음악을 썼고 시 수준의 가사까지도 만들었다. 이 앨범에서 그녀의 노래는 이전 음반보다 기교적인 면이나 음악적 영감 면에서 한층 더 성숙해졌다.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구성된 그녀의 밴드는 새벽안개처럼 혹은 저녁의 노을처럼 깔리는 감미로운 노래들을 완벽하게 반주한다. 무심코 그녀의 음반을 집어 들었다가 완전히 매료당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음반도 그럴 것이다. 한 곡 한 곡이 시를 읊는 것 같고, 그윽하고 매혹적인 분위기로 가득하다. 강력 추천한다!



FXCD 137

SILJE: ALLE MINE TANKAR

청정무구한 보컬과 여러 현악기의 조화가 쉽게 증발하지 않는 감동을 전한다. 국내 히트곡 〈Adle E Aleina (아들레 에 알레이나: 모두가 혼자예요)〉, 드라마에 쓰였던 〈Vi Vil Vite (비 빌 비메: 알고 싶어요)〉는 필청곡!



FXCD 153

SUSANA PENA: SENTIMIENTO

에쿠아도르 출신의 수사네 페냐가 힐켈리흐 레이블을 통해 발매한 첫 앨범. 호느끼는 듯한 푸른 목소리로 들려주는 NOSTALGIA를 비롯해 탱고, 볼레로, 페루비안 왈츠, 살사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유열의 음악앨범 '평화' 수록.



FXCD 156

KARI BREMNES: ERINDRING

카리 브람네스의 노래에서는 삶의 여유가 느껴진다. 95년도에 발표된 베스트 음반으로 카리 브렘네스가 걸어온 음악행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한곡, 한 곡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륜의 향기가 편안함으로 다가온다. 타이틀곡 〈Erindring〉에서는 '회상'이 뭉개뭉개 피어오른다.



FXCD 193

MARIANNE ANTONSEN: FRAME THIS MOMENT

마리안 안톤센은 노르웨이 뮤지션임에도 흑인영가, 블루스의 재해석에 일가견이 있다. 특히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매혹적인 저음은 그러한 장르를 표현하는데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도로시 무어의 명곡 〈Misty Blue〉의 그윽한 리메이크는 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



FXCD 198

ARILD ANDERSEN: SOMMERBRISSEN

노르웨이가 배출한 세계적인 재즈 베이스 연주자 아릴 안데르센의 98년도 앨범. 자신을 전면으로 내세우기 보다는 함께 협연한 기타, 아코디온과의 호흡을 중시해 편안하고 따스한 연주를 전한다. 1번 트랙 〈Det Gar En Vind (데 고르 엔 빈: 지나간 바람)〉은 이미 각종 드라마 등 TV프로그램을 통해 친숙해진 아름다운 곡.



FXCD 228

SUSANA PENA: CON EL CORO SKRUK

에콰도르 출신가수 수사네 페냐의 성가모음집. 원곡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가의 경건함을 살리면서 그 특유의 구성진 보컬을 들려준다. 마치 종달새가 지저귀는 듯한 그녀의 탁월한 완급조절이 감칠맛을 전한다.

TDK DVD Best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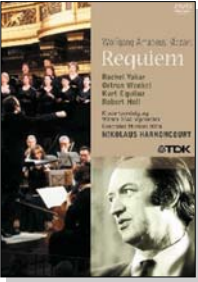


TDK DVWW-OPLTLF

1위
베르디: 라트라비아타

파트리차 치오피, 비올레타 / 로베르토 사카, 알프레도 / 드미트리 호보로스토프스키, 제르몽 / 로린 마젤, 지휘 /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

유서 깊은 초연무대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베르디의 걸작 오페라 큰 화제 이후 새롭게 재건된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오페라 극장. 2004년 11월 이 유서 깊은 극장에서 의미심장한 무대가 펼쳐졌다. 151년 전 바로 이 극장에서 초연되었던 베르디의 걸작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무대에 오른 것이다.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파트리차 치오피가 타이틀 롤을 맡았고, 다재다능한 테너 로베르토 사카가 알프레도를, 우리나라에서도 큰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은발의 러시아 베이스 드미트리 호보로스토프스키가 제르몽을 노래하였다. 주역 세 가수의 뛰어난 노래와 거장 로린 마젤의 노련한 리드도 일품이지만,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현재 천재적인 오페라 연출가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오페라 연출가 로버트 카슨의 도발적인 연출이다. 그는 오페라의 배경을 19세기 중엽 파리의 고급 사교계에서 육정이 지배하는 현대의 환락가로 바꾸어 놓았다. 대담한 네글리제 사이로 드러나는 치오피의 늘씬한 몸매는 카슨이 의도하는 흥동가 여인의 이미지를 근사하게 뒷받침한다. 또한 2막 후반부의 파티는 영락없이 환락가의 질펀한 스테이지쇼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몸을 사리지 않는 치오피의 뜨거운 열연과 눈부신 열창과 더불어 식상할 정도로 보편화된 이 오페라를 새로운 느낌으로 만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TDK DVWW-COMREQ

2위

모차르트: 레퀴엠

연주: 빈 국립 오페라 합창단 / 빈 콘세투스 무지쿠스 / 지휘: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열정적이고 드라마틱한 젊은 시절 아르농쿠르의 명연

1981년 11월 1일 오스트리아 빈의 무직폐라인 홀 실황. 음원은 이미 텔텍(Teldec)음반으로 출시되었던 기록이기 때문에 잘 알려진 것이다. 아르농쿠르가 연주한 판본은 우리가 흔히 듣는 쥐스마이어의 것이 아니고 독일 음악학자 프란츠 바이어의 것. 바이어 판본은 텍스처어를 간결하게 하고 음향도 절제해 상당히 금욕적이다. 아르농쿠르는 빈 국립 오페라 합창단, 축소된 원전악기 악단 콘센투스 무지쿠스로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차르트의 정서를 재현해낸다. 로버트 홀의 탁월한 가창. 25년 전 50대 초반의 지휘자 아르농쿠르의 열정적인 지휘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보너스 트랙에는 바흐의 유명 칸타타 BWV161 '오라, 그대 달콤한 죽음의 시간이여'가 들어 있어 감동을 조금 더 연장시킨다. 76분(55분+보너스 트랙 21분)

3위

2006년 베니스 페니체 오페라 극장 신년음악회

거장 쿠르트 마주어와 유럽오페라계의 세 젊은 기대주가 펼치는 화려한 무대

2003년 12월 베니스의 페니체 오페라극장은 불사조라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잿더미 위에서 다시금 부활하였다. 재개관 이후 매년 초하루 이 화려한 극장에서 펼쳐지는 신년음악회는 빈 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클래식 음악계의 성대한 음악축제의 한 마당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본 영상물은 2006년의 신년음악회를 수록한 것이다. 빈 필의 신년음악회가 그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왈츠들로 장식되는 것처럼, 페니체 극장의 신년음악회는 이탈리아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국의 오페라들이 중심이 된다. 본 공연에서는 베르디, 푸치니, 그리고 도니체티의 유명 아리아 및 합창곡들과 더불어, 올해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모차르트의 오페라 단편들을 무대에 올렸다. 다시금 건강을 회복한 거장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봉을 잡았고, 1996년 파바로티 콩쿠르 우승자인 소프라노 피오렌차 체돌린스, 실력과 바리톤 로베르토 스칸두치, 그리고 유럽 오페라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볼타 출신의 신예테너 조셉 칼레야가 참여하였다.

4위

귄터 반트 에디션 파트 2

브루크너: 교향곡 4,7번 / 슈베르트: 교향곡 5,8,9번 / 브람스: 교향곡 1번

NDR 심포니 오케스트라 / 귄터 반트

1990, 1995, 1997, 1999년 쉘레스비히-홀스타인 페스티벌 실황

영상으로 남겨진 위대한 거장의 마지막 볼꽃들

2002년 2월 14일 90세의 일기로 사망한 20세기 마지막 독일거장 귄터 반트. 노쇠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찬연히 불타올랐던 그의 위대한 예술혼을 이 숭고한 영상물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파트 1이 거장의 장기였던 브루크너의 교향곡들만을 다루었던 것에 반하여, 이번 파트 2는 브루크너의 교향곡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4번과 7번에 더하여 브람스 교향곡 1번, 슈베르트의 교향곡 5,8,9번으로 이어지는 보다 확대된 레퍼토리의 폭을 보여준다. 파트 1이 브루크너 마니아들을 위한 아이템이었다면, 이번 파트 2는 보다 일반적인 취향의 관현악 애호가들에게 반가운 선물이 될 것이다. 이번 영상물들 역시 뒤편에서 개최되는 쉘레스비히-홀스타인 페스티벌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1990년(브루크너 4번, 베토벤 레오노레 3번 서곡), 1995년(슈베르트 8,9번), 1997년(브람스 1번, 슈베르트 5번), 1999년(브루크너 7번)의 기록들이다. 후기의 영상으로 옮겨갈수록 거장의 육체적 노화가 점차적으로 심화되었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나, 악단 전체를 휘어잡는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나이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있는 것처럼 보인다.

5위

R.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2004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최대 화제작, 로버트 카슨의 <장미의 기사>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모차르트 전용 페스티벌인가? 그렇지 않다. 특히 모차르트와 함께 빈을 상징하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들은 이곳에서 빈번하게 공연된다. 본 영상물은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장미의 기사>의 2004년 잘츠부르크 축제대극장 실황으로, 현재 세계 오페라 연출계의 거물인 캐나다의 로버트 카슨이 연출을 맡아 엄청난 화제를 뿌린 바 있다. 카슨은 원작의 무대인 마리아 테레지아가 통치하는 18세기 중반을 오페라가 작곡될 당시인 20세기 초반으로 바꿔버렸다. 세계대전 발발 직전의 데카당스한 분위기가랄로 슈트라우스와 대본가 호프만슈탈이 진정 그려내고자 했던 것임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카슨은 등장인물의 캐릭터도 여기에 맞게 꼼꼼하게 수정하여 지금까지의 <장미의 기사>와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의 프로덕션으로 만들어냈다. 캐나다의 아드리안느 피츨카(마살린), 오스트리아의 안젤리카 키르히술라거(옥타비안), 스웨덴의 미아 페르손(소피), 독일의 프란츠 하울라타(옥스 남작)와 프란츠 그룬트헤버(파니발) 등 환상적인 출연진, 복잡한 악보로부터 투명한 음색과 오케스트레이션의 묘미를 이끌어냈다는 극찬을 받은 시미온 비쉬코프의 지휘, 슈트라우스 연주의 본산인 빈 필히모니 오케스트라가 탁월한 연주를 펼쳐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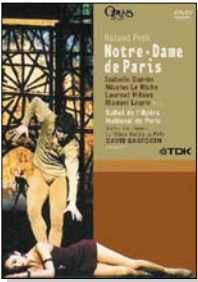
TDK DVWW-BLGISS

6위

아당: 지젤

현역 최고의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가 <지젤>을 춤추다

현재 볼쇼이 발레의 프리마돈나로 활약하고 있는 스베틀라나 자하로바는 자타가 공인하는 현역 최고의 발레리나 중 한사람이다. 특히 유별나게 긴 팔과 긴 다리를 지니고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체형을 지닌 발레리나로 꼽히기도 한다. 자하로바는 2005년 10월의 볼쇼이 발레 내한 공연에서도 바로 이 <지젤>로 당시 세종문화회관에 모인 한국 발레 팬들의 넋을 빼놓은 바 있다. 19세기 낭만 발레의 대표작인 <지젤>은 사랑하던 남자에게 배신당해 안타깝게 죽은 지젤의 영령이 옛 연인에게 복수할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영령들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켜낸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본 영상물은 2005년 4월 밀라노 라 스칼라 발레의 최신 실황이며, 알렉산더 브누아의 전설적인 세트를 재현한 무대는 기절할 정도로 아름답다. 자하로바의 상대역으로는 유럽 발레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탈리아의 미남 발레리노 로베르토 볼레가 출연했다.



TDK DVWW-BLNOT

7위

롤랑 프티: 발레 <노트르담 드 파리>

프랑스 문화계의 역량을 응집해 놓은 화려한 무대

뮤지컬의 큰 성공과 더불어 다시금 세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무용가 롤랑 프티는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와 꼽추 콰지모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한 편의 멋진 모던발레극으로 승화시켰다. 프티는 1965년 자신이 객원안무가로 있던 파리 오페라 발레단을 위해 이 작품을 준비하였고, 프랑스 영화음악계의 대부인 모리스 자르에게 음악을 맡겼다. 바로 '닥터 지바고', '아라비아의 로렌스', '사랑과 영혼', '죽은 시인의 사회' 등의 주옥같은 영화들의 음악들로 우리에게도 무척이나 친숙한 이름이다. 본 영상물은 1996년 파리 국립 오페라에서의 공연을 옮긴 것으로, 이자벨 제랭(에스메랄다), 니콜라 르 리쉬(콰지모도), 로랑 일레르(프롤로 주교), 마누엘 르그리(페뷔스)라는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한다. 또한 화려한 원색으로 무대를 수놓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의 의상을 역시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8위

베르디: 리골레토

그레엄 빅의 연출과 세 주역가수가 빼어난 조화를 이룬 최신 리골레토

어린 두 자식을 일찌감치 잃은 베르디는 아버지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딸의 애틋한 사랑을 다룬 작품을 많이 작곡했다. 모두 하나같이 명곡들이지만 그중에서도 <리골레토>만큼 대중적 인기를 획득한 오페라는 없다. 벨칸토 오페라의 전통을 계승하는 이 작품은 그만큼 선율미가 뛰어나고 이탈리아 특유의 직설적인 표현방식으로 극을 이끌어 나간다. 2004년 12월 바르셀로나의 리세우 극장 실황인 본 영상물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테너'라 불리는 마르셀로 알바레즈, 스페인이 자랑하는 바리톤 카를로스 알바레즈,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질다'로 떠오른 인바 몰라가 출연하여 더 이상 바라기 힘든 수준의 뛰어난 노래와 연기를 펼친다. 또한 손대는 작품마다 찬사를 몰고 다니는 연출가 그레엄 빅은 리골레토의 캐릭터를 더한층 부각시킨 동시에 특유의 현대적인 관점이 드러난 무대장치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의 의상과 연기는 전통과 맞닿아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극적 진행을 물 흐르듯 끌고 나갔다. 마지막 씬의 인상적인 설정과 눈물범벅 연기는 엄청난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TDK DVWW-OPGIOC

9위

아밀카레 폰키엘리: 라 조콘다

<라 조콘다>의 암울한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살려낸 공연

<라 조콘다>는 베르디와 푸치니 사이에 활동한 아밀카레 폰키엘리의 걸작 오페라로서 특히 여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을 가장 어둡고 깊은 감동으로 그려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 대신 '가희(歌姬)'이라는 뜻의 라 조콘다로만 불릴 정도로 비천한 존재이지만, 온 몸을 바쳐 사랑한 연인 엔초가 옛 사랑과 재회하면서 위기 상황에 빠지자 자신의 목숨을 바쳐 두 사람을 구한다. 2005년 바르셀로나 리세우 대극장 실황인 본 영상물은 거장 피에르 루이지 피치가 무대와 의상, 연출을 도맡아 이 오페라의 어두운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살려냈다. 특히 색상 포인트를 주요 배역의 의상에 맞춰 자신들의 캐릭터와 운명을 상징하도록 했다. 타이틀롤은 현역 최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로 평가받는 미국의 데보라 보이트가 맡았으며 악역인 바르나바 역의 카를로 구엘피도 최고의 바리톤이다. 이 오페라에 포함된 유명한 발레 '시간의 줄'에는 스페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발레리노 안헬 코레야, 피에르 루이지 피치가 특별히 총애하는 발레리나 레티치아 줄리아니가 특별출연하여 오페라 공연에 포함된 발레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도발적이고도 수준 높은 볼거리를 선사한다.



TDK DVWW-OPFINT

10위

모차르트: 가짜 여정원사

아르농쿠스가 마법의 숨결을 불어 넣은 모차르트의 숨겨진 걸작
모차르트가 19세에 작곡한 오페라 부파 <가짜 여정원사>는 공연될 기회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음악적인 문제보다 부파의 틀을 벗어난 기이한 캐릭터와 줄거리 때문이다. 주인공 산드리나(소프라노)는 연인으로부터의 심판아 칼에 찔렸다가 기사회생하여 옛 연인을 찾아 나선다. 벨피오레(테너)는 산드리나를 죽였다고 착각하고 멀리 도망하여 그곳의 숙녀인 아르민다와 결혼하기 직전이다. 이곳에 여정원사로 위장한 산드리나가 나타나고 더 많은 남녀가 가세하여 복잡한 애정관계가 펼쳐진다. 그러나 산드리나와 벨피오레의 행동이 비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대본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오스트리아의 배우 출신 연출가 토비아스 모레티는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설득력 있는 해석을 꾀했다. 두 주인공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살해시도라는 충격적인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것이다. 청초한 소프라노 에바 메이(산드리나), 글래머스타 이자벨 레이(아르민다), 매력적인 금발의 테너 크리스토프 스트렐(벨피오레) 등이 출연했으며, 우리 시대 최고의 모차르트 지휘자 니콜라우스 아르농쿠스가 마법 같은 연주를 펼친 2006년 2월 취리히 오페라 실황이다.

OpusArte DVD Best 10



Opus Arte OA0939D

1위

미켈란젤리가 연주하는 베토벤: Michelangeli plays Beethoven

미켈란젤리가 연주하는 베토벤 / 스카를라티 / 갈루피 (1962년 이탈리아 투린 녹음)

미켈란젤리 그 유명한 갈루피 소나타 연주하다!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너무도 귀중한 영상물, 알프레드 코르토로부터 '새로운 리스트의 탄생'이라는 격찬을 받았고, 아르헤리치와 폴리니라는 대 피아니스트를 키워냈던 피아노의 완벽주의자. 그의 이 진기한 기록물은 너무도 감동적이다. 20대 초반부터 평생에 걸친 관심으로 연주했던 베토벤의 소나타 Op.2의 No.3, 신기에 가까운 솜씨로 정신의 승화를 들려주는 베토벤 후기 소나타 Op.111의 32번, 치밀한 분석으로 작품의 장점을 속속들이 파헤친 스카를라티의 소나타, 그리고 모든 애호가들이 가장 궁금해 할 레퍼토리인 갈루피의 영동한 소나타가 실렸다. 미켈란젤리의 뛰어난 감각과 음악성 덕분에 갈루피의 소나타는 수정처럼 맑은 얼굴로 다가온다. 1962년 흑백영상이지만 디지털 리메스터링 음향은 상당히 좋다. 지장은 42세 때의 모습이다. 84분.



Opus Arte OA0940D

2위

미켈란젤리가 연주하는 쇼팽: Michelangeli plays Chopin

미켈란젤리의 역사적 콘서트 제 2탄

오프스 아르테가 야심 찬 기획으로 선보이는 전설적인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미켈란젤리 리사이틀 DVD.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1탄 '미켈란젤리가 연주하는 베토벤'에 이은 제 2탄이다. 1962년 투린 레코딩으로 그 희귀성이나 역사적 가치를 생각하면 듣기 전부터 가슴이 설렌다. 쇼팽의 B플랫 단조 피아노 소나타와 발라드,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폴로네즈, 환상곡, 왈츠, 스케르초, 마주르카, 자장가에 이르기까지 쇼팽의 주옥같은 음악들만 담았다. 화려한 기교, 정교한 컨트롤, 수정처럼 맑은 미켈란젤리의 음향을 만끽하게 한다. 1탄과 마찬가지로 리메스터링을 거친 음향은 상당히 깨끗하다. 특히 발라드와 마주르카에서 보여주는 깊고 넓고 다이내믹과 독특한 분위기의 타건은 압권이다.



Opus Arte OA0901D

3위

푸치니: 토스카

다니엘라 데시, 오늘날 이보다 훌륭한 토스카는 불가능하다!

토스카는 대개의 오페라 여주인공과 달리 청순가련형이 아니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며 연인 카바라도시와의 열정적인 사랑을 스스로 주도하는 성숙한 여인이다. 그렇기에 갑자기 맞닥뜨린 비극적 상황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고자 한다. 이런 캐릭터는 최고의 드라마틱한 소프라노가 아니고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다니엘라 데시는 아름다운 자태와 풍요로운 음성으로 이탈리아 최고의 현역 소프라노로 자리잡았거니와 이제 연륜까지 더해져서 칼라스의 전설에 견줄만한 토스카를 연기한다. 상대역 카바라도시로는 데시의 실제 남편이자 청아한 음성의 테너 파비오 아르필리아토가 나섰으며, 역시 이탈리아 오페라의 국보급 베이스 루제로 라이몬디가 악역 스카르피아를 노래한다. 2004년 1월 스페인의 테아트로 레알 마드리드 최신판 실황이며 여류 연출가 누리아 에스페르트가 라 스칼라의 무대 미술가 에치오 프리제리오와 협력하여 음침한 가운데 예술성과 현대성까지 가미된 독특한 무대를 창조했다.



Opus Arte OA0933D

4위

베르디: 돈 카를로

세계 오페라계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테너 롤란도 비아존의 첫 영상물

현재 유럽 오페라 계는 새로운 테너의 출현으로 들떠있다. 멕시코 출신의 롤란도 비아존(Rolando Villazon)이 그 주인공이며 그의 광풍은 미국으로, 일본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호세 카레라스의 열정, 플라시도 도밍고의 연기력,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미성을 두루 겸비한 무결점 테너로 불리는 비아존은 이미 두 개의 독점 음반을 통해 전세계 오페라 팬을 열광시켰지만 본격적인 오페라 영상물은 이번이 처음이다. <돈 카를로>는 19세기 스페인 최전성기의 궁정을 배경으로 5명에 달하는 주인공들이 운명적인 비극으로 치닫는 이야기이며, 인본주의자로서 베르디의 모든 역량이 집결된 감동적인 명작이다. 2004년 네덜란드 오페라 실황인 이 영상물은 롤란도 비아존 외에 로버트 로이드(필리포 2세), 아만다 루크로프트(엘리자베타), 드웨인 크로프트(로드리고), 비올레타 우르마나(에볼리), 그리고 천재 지휘자 리카르도 샤이가 드림팀을 구성하여 그 감동을 폭발적으로 구현했다. 스페인 왕가의 영묘(靈廟)인 엘 에스코리알과 십자가에 못박힌 거인의 발을 길게 드리운 빌리 데커와 볼프강 구스만의 무대는 이 작품의 암울한 분위기를 완벽하게 조성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단연코 최고의 영상물이다.



Opus Arte OALS3000BD

5위

라 스칼라 컬렉션

11개의 오페라 아이템 총 30시간이 넘는 아이템.

정상가라면 30만원에 육박한 세트를 9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클래식 DVD 영상물 가운데서도 최고의 음질과 화질을 자랑하는 오프스 아르테의 <라 스칼라 컬렉션> DVD가 초특가 박스세트로 판매된다. 11개 아이템을 고품격 하드 박스에 담았고, 저가형으로 따로 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풍부한 정보가 있는 소책자도 그대로 들어있다. 리카르도 무티, 로린 마젤, 스테파노 란차니 등 저명한 지휘자들이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지휘하고, 토마스 알렌, 플라시도 도밍고, 레나토 브루손, 세릴 스투더 등 둘째가라면 서러울만한 세계 최고의 오페라 가수들이 총 출동한다. 그야말로 초호화 영상물. 당신의 라이브러리를 풍요롭게 해줄 귀중한 아이템! 오페라 애호가라면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6위

미켈란젤리가 연주하는 드뷔시: Michelangeli plays Debussy

눈으로도 확인하는 '완전무결함'

오프스 아르테의 전설적인 미켈란젤리 투린 영상물 제 3탄! 이번에는 드뷔시다. 영상 1권, 2권, 어린이 세계를 온전하게 담았고, 전곡집 2권에 있는 두 곡도 실었는데 10번 '카노프', 5번 '히스가 무성한 황야'다. 예민하고 정교한 타건의 미켈란젤리의 도이체 그라모폰 음반은 이미 애호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드뷔시 음반으로 사랑받은 지 오래다. 그의 드뷔시 음악의 특징이라면 한마디로 '완전무결함'인데, 듣기만 하던 그것을 이제 눈으로도 확인하게 되었다. 미켈란젤리의 제자들도 나온다. 1962년 RAI텔레비전 레코딩, 새로운 리메스터링을 거쳐 그의 순결한 음원은 한결 깨끗해졌다. 84분



Opus Arte OA0941D



Opus Arte OA0965D

7위

쇼스타코비치: 므젠스크의 맥베스 부인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에 부쳐 챙겨두어야 할 기념비적 오페라
2006년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소비에트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1906~75)의 탄생 100주년이었다. 이를 기념하여 그의 교향곡과 실내악, 협주곡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오페라 역사상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한 〈므젠스크의 맥베스 부인〉이야말로 2006년에 가장 큰 각광을 받은 작품이라 하겠다. 본 영상물은 2006년 6월에 암스테르담에서 공연된 최신 실황이다. 빈 필, 베를린 필과 더불어 세계 악단에서 3장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로열 콘서트헤보 오케스트라를 이 악단의 상임지휘자 마리스 야손스가 지휘했다. 구 소련권인 라트비아 출신의 야손스는 현존하는 쇼스타코비치 최고의 지휘자답게 음침하면서도 통렬한 이 오페라의 매력을 남김없이 끌어냈다. 〈므젠스크의 맥베스 부인〉은 정부와 놀아나다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살해하는 요부 카테리나 이즈마일로바의 얘기다. 내용 자체가 너무도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섹스 장면도 포함되어 초연 당시에는 '포르노'로 몰리기도 했다. 연출자 마르틴 쿨제이는 현재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연극 파트를 총괄하는 거물이며 원초적 욕욕이 이성을 짓밟고 암울한 피날레로 치닫는 상황을 극적으로 구현했다. 에로틱한 관능보다 인간사의 어둡고 비밀스런 진실에 더 주목한 프로덕션이다.



Opus Arte OA0934D

8위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노라 암셀렘(비올레타) / 조세 브로스(알프레도) / 레나토 브루손(제로몽)
헤수스 로페즈-코보스(지휘) / 테아트로 레알 데 마드리드

눈과 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너무나 매혹적인 라 트라비아타
유럽 오페라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비올레타로 급부상 중인 프랑스 소프라노 노라 암셀렘의 우아한 매력과 아름다운 절창을 만끽할 수 있는 멋진 영상물. 2005년 3월 테아트로 레알 데 마드리드에서의 실황으로, 이 유서 깊은 오페라극장의 새로운 음악 감독으로 임명된 스페인 출신의 거장 헤수스 로페즈-코보스의 데뷔무대이기도 하다. 비올레타의 현신(現身)과도 같은 암셀렘의 뛰어난 열연에 덧붙여, 뽁칸토 레퍼토리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바르셀로나 출신의 신성 조세 브로스와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는 관록의 명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적절한 신구조화 역시 흠잡을 곳이 없다. 파리 고급 사교계와 당시의 퇴폐적인 주색 풍속도를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재현해낸 피에르 루이지 피치의 연출 또한 많은 볼거리들을 안겨준다. 특히 2막의 향락가 밤무대 묘사는 꽤나 선정적이다. 캐스트 갤러리, 일러스트레이티드 시놉시스와 더불어 작품과 프로덕션에 관한 로페즈-코보스, 암셀렘, 브로스, 브루손의 32분 분량의 인터뷰가 보너스로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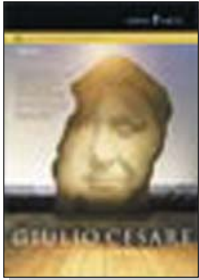
Opus Arte OA0921D

9위

모차르트: 돈 조반니

연광철, 그가 노래하는 레포렐로를 만나다!!

한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베이스 연광철, 현존 최고의 모차르트 히로인으로 각광받고 있는 베로니크 장, 슬라브 베이스의 적통을 잇고 있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세계적인 베이스 아나톨리 코르체가 한 무대에 올랐다. 본 영상물은 2002년 12월 바르셀로나의 유서 깊은 리세우 대극장의 공연을 옮긴 것으로, 세계 최정상급 성악진들의 열연과 더불어 격렬한 논쟁을 낳았던 괴짜 연출가 칼릭스토 비에이토의 파격적인 무대 연출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비에이토는 난봉꾼을 활동 무대를 21세기 대도시의 뒷골목으로 옮겨 놓았다. 흡사 과거 큰 화제를 낳았던 영국 연출가 피터 셀라스의 현대적인 프로덕션을 연상시키나, 돈나 안나를 겁탈하는 카케스 신으로부터 시작되는 비에이토의 연출은 보다 강렬한 파격의 충격파를 만들어낸다. 지휘자 베르트랑 드 비이는 파격적인 비주얼과 달리 음악적으로는 절충주의 적인 해석이 가미된 정통적인 모차르트를 지향하였다. 2채널 LPCM 스테레오와 5.1채널 DTS를 지원하며, 캐스트 갤러리와 일러스트레이티드 시놉시스가 보너스로 제공된다.



Opus Arte OA0950D

10위

헨델: 줄리오 체사레

크리스티의 손끝에서 재현된 헨델의 걸작 오페라

1724년에 초연된 헨델의 장편 오페라 〈줄리오 체사레〉는 작곡가가 남긴 수많은 이탈리아 오페라들 중에서도 가장 성공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줄리오 체사레(율리우스 케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로맨스, 클레오파트라와 톨로메오 남매의 암투, 톨로메오에게 살해된 폼페이(폼페이우스)의 아내와 아들인 코르넬리아와 세스토의 복수 등이 어우러지면서 이 장대한 오페라의 스토리를 만들어간다. 4시간이 넘는 공연시간을 자랑하는 작품인 만큼 일부를 생략한 축약본 형태로 공연이 주로 이루어지는 편이나 본 영상물이 담고 있는 2005년 8월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실황은 작품 전체를 온전히 무대에 올렸다. 케사르를 19세기말 빅토리아 왕조시대의 정복자로 재해석한 데이비드 백비카의 창조적인 연출은 별다른 지루함 없이 이 긴가긴 작품을 단번에 감상할 수 있을 정도로 흥미진진하다. 일급 성악진들의 열창과 열연이 눈부시며, 특히 클레오파트라를 맡은 데 니스의 매력적인 용모와 관능적인 연기가 특기할 만하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 최고의 바로크 오페라 스펙터리스트인 윌리엄 크리스티의 지휘는 이 영상물의 음악적인 충실함을 보장한다. 프로덕션 포토 갤러리, 리허설 포토 갤러리, 캐스트 갤러리, 일러스트레이티드 시놉시스, 데 니스의 글라인드본 생활상을 재미있게 다룬 22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헨델 오페라 재해석에 관한 프로덕션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담은 5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가 부록으로 제공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즐거운 날 크리스마스에 듣기 좋은 음반들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 애청곡들을 담은
음반들을 소개한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여유롭고 아름답게 보내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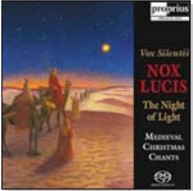


PRSACD 2035

Julens Ljus (The Light of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빛) Hybrid-SACD

스톡홀름 학생 남성합창단 (Stockholms Studentsanare) / 카린 올드그렌(지휘)

세계적인 베스트 & 스테디 셀러 '칸타타 도미네' 에 이어서 프로프리우스가 내놓은 또 하나의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한 주목할 만한 캐럴 음반. 1905년 창립된 스웨덴 학생 남성합창단은 합창 강국 스웨덴에서도 오랜 역사와 우수한 앙상블로 큰 명성을 누리고 있는 단체이며, 1990년부터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통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아베 마리아, 세 동방박사, 세 마리의 양을 보았네, 마리아의 자궁가, 보아라 용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 애청곡들을 담은 이 음반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여유롭고 아름답게 장식해줄 것이다.



PRSACD 2038

Nox Lucis (The Night of Light: 빛의 밤) Hybrid-SACD

복스 실렌티(Vox Silentii)가 노래하는 크리스마스를 위한 중세 찬트들. 두 여성 음악가들로 구성된 복스 실렌티는 그간 여러 중세 음악 음반들로 세계적인 명성을 확보해왔다. 유명한 크리스마스 찬트 Hodie Christus natus est(오늘 그리스도 나셨네)를 비롯한 중세 크리스마스 성가들로 구성된 이 음반은 너무나 소비적이고 환락적인 행사로 변질되어버린 크리스마스의 신비롭고도 경건한 본질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의 목소리가 최고 최선의 악기임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는 음반.



SDG 127

JS 바흐 – 칸타타 15집
크리스마스 제 3일을 위한 칸타타

John Elliot Gardiner / Monteverdi Choir / English Baroque Soloists

BWV151은 가장 친근한 바흐 칸타타의 하나다. 매혹적으로 아름다우며 마음에 위안을 주는 첫 소프라노 아리아는 글록이나 브람스를 예견하는 듯하다. BWV57은 오페라를 한 편도 쓰지 않았으나, 몬테베르디 이후 가장 뛰어난 극적인 음악 작곡가였던 바흐의 또 다른 일면을 즐길 수 있는 기회다. 활기찬 리듬감이 돋보이는 BWV133의 도입합창은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풍성하게 담아내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한 몬테베르디 합창단의 멋진 선물이 될 것이다.



SDG 113

JS 바흐 – 칸타타 14집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한 칸타타들 BWV 40, 91, 110, 121

John Elliot Gardiner / Monteverdi Choir / English Baroque Soloists

종교와 인종의 벽을 초월하는 바흐 음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가디너의 바흐 칸타타 시리즈. 이번 14집에서는 각각 크리스마스과 그 다음날을 위한 칸타타 두 편씩을 한 자리에 모았다. 2000년 크리스마스 날에 뉴욕 바틀로뮤 교회에서 있었던 실황을 고스란히 옮긴 것으로 연주를 통해 발산되는 기쁨과 설렘이 작품의 성격을 충실히 반영한다. 바흐 애호가들을 위한 멋진 성탄 선물이 되어줄 것이다.



PRSACD 7762

Cantate Domino

Oscar's Motet Choir / Torsten Nilson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오디오파일용 레퍼런스 앨범!

세계의 대표 성가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경건함을 더해 주는 알프 린다르의 파이프 오르간 독주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 민요 '아리랑' 을 영국의 말콤 서전트경이 편곡해 '자장가(Lullaby)' 라는 타이틀로 수록하고 있어 화제를 모았다. 서구의 감각으로 재현하는 우리 민요 아리랑의 새로운 해석이 돋보이는 음반이다. 시종일관 단정하면서도 풍성한 울림이 돋보이는 훌륭한 녹음이 매력인 오디오파일 추천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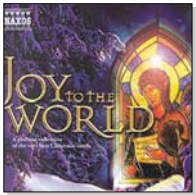


PRCD 2012-3

JS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BWV248

크리스티안 월체(sop) / 모니크 그롭(alt) / 하워드 크록(te) / 군나르 룬드베리(bass) / 에릭 에릭슨 합창단 / 드로트닝홀름 바로크 앙상블 / 에릭 에릭슨

'부활', '승전' 과 함께 바흐의 유명한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는 바흐가 쓴 종교음악 가운데 가장 최후에 나온 작품이며 장대한 기쁨의 최대 걸작이다. 성탄절의 기쁨과 환희로 충만해 있고 선율도 또렷해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이 명곡은 그 대중적 인기만큼이나 좋은 음반이 많다. 그러나 복구 합창음악의 대부 에릭 에릭슨이 크리스티아네 월체, 모니카 그루피 등 명가수들을 기용해 자신의 합창단과 함께 녹음한 이 음반도 놓칠 수 없다. 프로 프리우스의 부드럽고 생생한 음향은 놀라울 정도다. 1993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스톡홀름의 베르발트 홀에서 녹음한 것이다.



Naxos 8.557160

Joy to the World

Various Artists

전 세계 각국의 현재와 과거의 캐럴들을 한 자리에 모음 음반. Coventry Carol, Unto us is born a son, In dulci Jubilo, The First Noel, Away in a manger, Silent night, Hark the herald angel sing etc.



Naxos 8.557585

A Christmas Choral Spectacular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 피터 브라이언

'딩동! 메릴리 온 하이', '오 탄넨바움', '아기 양',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고요한 밤' 등 신, 구 캐롤들을 13개 트랙에 담았다. 지휘자 피터 브레이너는 이 음반에 자신의 작품도 하나 포함시켰고, 모두 자신이 직접 편곡했다. 멋진 편곡을 통해 신선한 캐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반.



Naxos 8.557965

Christmas with Wincester College Chapel Choir

원체스터 칼리지 채플 합창단 / 홍콩 필하모닉 / 윌리엄 라시

2004년 12월 원체스터 칼리지 채플 합창단의 홍콩 공연 실황. 바흐 칸타타와 헨델 메시아 중의 유명 합창곡들, 그리고 프레토리우스의 르네상스 시대 캐럴에서 태브니와 러터의 현대 종교합창단까지 다양한 종교음악의 진수를 맛보게 하는 음반.



Naxos 8.554723

Gabriel's Message

캐럴의 천년역사

중세에서 현재에 이르는 캐럴의 긴 역사를 한 음반에 간추렸다. Gabriel's Message, Coventry Carol, God is with us, God rest ye Merry, Away in a Manger, In Duici Jubilo, Silent night, A Hymn to the Virgin etc



Naxos 8.570131

헨델: 메시아 (1751년 버전)

헨리 제킨스, 오타 존스, 로버트 브룩스(보이스소프라노) / 이스틴 데이비스(카운터테너) / 토비 스펠스(테너) / 이몬 더건(베이스) / 옥스퍼드 뉴칼리지 합창단 / 에드워드 히긴바텀(지휘) / 고음악 아카데미

낙소스에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헨델의 걸작 오라토리오 '메시아'. 1742년 더블린 초연본을 복원했던 스콜라스 바로크 앙상블과 달리 이번 신보는 남성들만으로 연주에 임했던 1751년 런던공연 버전을 재현하였다. 합창단의 소프라노와 알토파트는 물론, 솔로 아리아들 역시도 보이소프라노와 카운터테너들이 담당한 이 연주는 유구한 영국 합창음악의 전통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했다는 의의 또한 지닌다. 소프라노 아리아를 분담한 세 명의 보이소프라노를 필두로 옥스퍼드 뉴 칼리지 합창단이 들려주는 투명한 발성이 아름다우며, 호그우드 음반 이후 오랜만에 메시아의 반주를 맡은 고음악 아카데미의 충실한 관현악반주 역시 충실하다.



Naxos 8.570344-45

The Very Best of Christmas (유명작곡가들의 크리스마스를 위한 음악들)

크리스마스시즌을 위한 낙소스의 베스트 컬렉션. CD1에는 인기 캐럴과 함께 성탄을 노래하는 여러 유명작곡가들의 종교합창곡들이, CD2에는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겨울시즌을 그려낸 비발디의 겨울, 차이코프스키의 12월, 모차르트의 썰매음악, 림스키코르사코프의 크리스마스이브 등등의 스탠더드 클래식레퍼토리들을 담았다.



MDG 320 1345-2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오르간 음악

Elisabeth Roloff, Rieger Organ / St. Catharina Bethlehem

베들레헴의 성탄기념교회인 성 카타리나 교회의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크리스마스 관련 작품들. 유다스 마카베우스 중 '보아라 용사' 를 편곡한 길망의 작품을 비롯하여, 브람스, 레거, 보잘만 등의 오르간 작품들이 성탄의 경건한 감동을 한층 짙게 해줄 것이다.



MDG 605 1232-2

슈텔첼: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Handel's Company / Kammerchor der Marien-Kantorei Lemgo / Rainer Johannes Homburg

바흐와 동시대 작곡가인 슈텔첼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의 세계 최초 녹음. 슈텔첼은 바흐보다 5년 뒤에 태어난 작곡가로 고타의 궁정작곡가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악곡과 1200편이 넘는 칸타타를 포함하는 종교작품들을 양산해내었다. 독일 바로크 종교음악의 탄탄한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값진 음반.



MDG 605 1369-2

슈텔첼 - 크리스마스 칸타타

Handel's Company / Kammerchor der Marien-Kantorei Lemgo / Rainer Johannes Homburg

슈텔첼(1690~1749)은 바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로 고타의 궁정작곡가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악곡과 함께 1200여 편의 칸타타를 포함하는 방대한 양의 종교작품들을 양산하였다. 음악학자 마테존은 '감각과 지식을 겸비한 위대한 작곡가' 라고 그를 칭송하였고 바흐 역시도 라이프치히 시절 이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곤 했다.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슈텔첼 음반으로, 독일 바로크 종교합창곡 애호가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906 1369-6 : 독일음반의 Hybrid-SACD)



FXCD 287

IVER KLEIVE: HYRDENES TILBEDELSE

이베르 클레이베가 연주하는 '목자의 예배'. KKV가 선보이는 올해 최고의 크리스마스 CD! 이베르 클레이베가 달콤하고 명상적인 분위기의 피아노 선율로 참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들려준다. '고요한 밤', '아름다운 구주', '한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네', '내 마음은 항상 예수와 함께' 등 주옥같은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야고보 교회 스타인웨이 피아노 선율로 퍼진다. 음악들은 하나같이 간결하지만 너무도 달콤하다!



FXCD 230

MARIANNE ANTONSEN: SOULFUL CHRISTMAS SONGS

허스키한 중성의 목소리를 지닌 마리안 안톤센이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노래 모음집. 앨범 제목이 말해주듯, 그녀가 가진 매력적인 깊고 풍성한 보이스 색채를 맘껏 펼쳐 보인 가장 소울풀한 음반이다. 차분하게 성탄절 이브를 맞고 싶은 분, 아름다웠던 크리스마스를 회상하고픈 분들에게는 최고의 앨범이 아닐까?



FXCD 300-2

OSLO GOSPEL CHOIR: MIA GUNDERSEN

듀엣으로 전한 부드러운 크리스마스 메시지(노래: 미아 군데르센 & 비야르테 헬메란드) 평화와 용서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사랑의 노래를 선사하고 있는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 이번에는 군데르센과 헬메란드라는 두 명의 남녀 듀엣을 내세워 포근하고 인상적인 음반을 만들었다. 크리스마스 축제의 분위기가 아주 부드럽게 연출되었는데, 유명한 '고요한 밤' 외에도 '베들레헴으로 가는 순례자', '아름다운 구세주', '양을 기르신 주님'이 나오고,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의 지휘자인 토레 아스가 쓴 새 크리스마스 노래와 다른 노르웨이 아티스트가 쓴 '눈 속의 천사', 영국의 옛 크리스마스 캐럴인 '내 가슴안의 천국', 그리고 한스 올라브 뢰르크와 토레 아스가 쓴 '마리아의 노래'도 실렸다. 시즌 곡이나 새 창작곡과 편곡물 모두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레퍼토리들이다. 피아노, 기타, 드럼, 그리고 13명의 현악기 연주자들도 아주 편안하게 노래를 반주해준다.



FXCD 299

VINTERMANE: SODE JULENAT

감동의 극치! 크리스마스 이브 퓨전 콘서트 (연주: 빈테르마네)
재즈와 민요를 적절히 섞은 듯한 음악을 들려주는 빈테르마네란 악단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음반이다. 여성 보컬을 맡은 안네 그라비르가 민요형식으로 편곡된 크리스마스 노래들을 아주 편안하게 불러주고, 반주는 피아노, 색소폰 등이 맡았다. 피아노는 부드럽고 색소폰은 아주 유려하다. 이들 트리오는 1997년부터 매년 12월에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연 것으로도 북유럽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 음반에 그들이 이제까지의 콘서트에서 즐겨 부르던 것들 중 핵심 레퍼토리들을 골라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란 타이틀로 담았다. 첫 트랙의 '고요한 밤'에서 매혹적인 연주와 가창에 단번에 매료되지만, 그 감동은 11개 트랙까지 변함없이 이어진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기쁘다네', '이 행복한 크리스마스 시간에', '내 마음은 항상 예수와 함께 있네', '신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네' 등 노래들이 하나같이 아름답다.



FXCD 231

KATIA CARDENAL: VEN A MI CASA ESTA NAVIDAD

(카티아 카르데날 - 벤 아 미 카사 데스타 나비다드: 올 성탄절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니카라과 출신의 카티아 카르데날이 스페인어로 부른 크리스마스 노래 모음집. 특히 이 앨범에는 쿠바의 유명 한기타리스트 레이 구에라(Rey Guerra)가 참여하고 있어, 독특한 라틴 기타 연주를 맛볼 수 있는 기쁨도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롤 뿐만 아니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등지에서 즐겨 불려지는 맑고 명랑한 크리스마스 노래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추천곡 : 2번, 4번, 12번



FXCD 160

토레 브룬보리 & 크예틸 비에르케스트란

크리스마스 재즈 캐럴 앨범

숲속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는 것 같은 음악이다. 중세 교회에서 녹음했고, 스튜디오가 아닌 교회 오르간의 성스러운 음향은 압권이다. 색소폰 연주자 브룬보리는 ECM을 통해 익히 알려진 아티스트. '고요한 밤'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노래들, 노르웨이 전통 성가도 여러 편 들어있다. 노르웨이 재즈의 고요하고 거룩한 순간이다!



FXCD 301

룰프 리슬레반트: 옛날의 크리스마스(FUL I GAMMEL TID)

환상적인 노르웨이 크리스마스

고음악 아티스트로 기타와 류트를 연주하는 룰프 리슬레반트가 선사하는 1300년에서 1674년까지의 옛 크리스마스 음악. 고전음악 범주의 고음악 외에 전통적인 노르웨이 포크송, 그리고 몇몇 애창곡들이 연주된다. '하늘 높은 곳에서 들었던 천사의 음성' 등 노르웨이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장면들을 순식간에 우리 공간에 펼쳐놓을 수 있는 베스트 크리스마스 앨범 중의 하나. 류트, 하프의 고색장연한 연주곡도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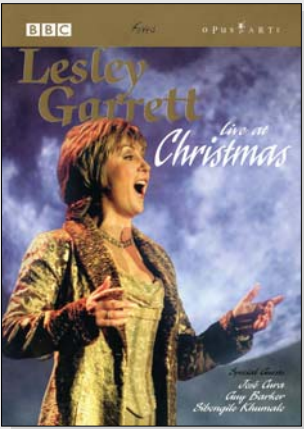


FXCD 247

카리 브렘네스 & 리카르트 볼프: 12월의 아이

환상적인 크리스마스 앨범

노르웨이의 명가수이자 노래 작곡가인 카리 브렘네스가 스웨덴의 배우이며 가수인 리카르트 볼프와 만든 2001년 앨범. 제목 '12월의 아이'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크리스마스 앨범이다. 하지만 단순히 성가가 아니라 종교적 이면에서도 매우 시적인 노래다. 오디오파일용 음반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히르켈리히의 환상적인 음향 풍경을 보여주는 앨범이기도 하다.



OpusArte OA0884D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
크리스마스 음악회 실황

특별초대가수 & 연주자:

호세 쿠라(테너), 가이 바커(트럼펫), 시봉길레 쿠말로(흑인가수)

연주: 노던 신포니아, 노던 스피리트 싱어즈

지휘: 필립 엘리스

16/9 아나몰픽. 60분

수록곡:

오 거룩한 밤 / 복치는 소년 / 알렐루야 / 인터메초 에피코 /
슬슬한 한겨울에 / 거룩한 땅에 / 트럼펫을 울려라 /
아이야 밝은 춤단다 / 쿼볼라 / 나와 함께 하소서 / 탄생 /
영광의 세계에 있는 천사들 / 고요한 밤

보고 또 봐도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레슬리 가렛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은 '영국의 조수미'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녀가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에서 최고의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클래식 가수라는 의미다. 노던 신포니아의 풍성한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오 거룩한 밤' (아당), '알렐루야' (모차르트), '슬슬한 한겨울에' (홀스트/로제티), '거룩한 땅에' (데이비스), '나와 함께 하소서' (몽크) 등을 부른다. 특히 '나와 함께 하소서'는 그 곱고 귀여운 미소로 경건하게 노래하는 레슬리 가렛은 우리를 완전히 매료시킨다. 깊고 풍성한 육성의 흑인 가수 시봉길레 쿠말로가 레슬리 가렛과 함께 '복치는 소년', '쿼볼라', '영광의 세계에 있는 천사들'을 부르는 장면도 즐거움이 넘친다. 퍼셀의 '트럼펫을 울려라' 등에서 가이 바커가 뿌려주는 트럼펫 양념도 좋지만, 이 아름다운 콘서트를 더 황홀한 색으로 덧칠하는 것은 오페라 수퍼스타 호세 쿠라의 달콤한 음성이다. 그는 소박하게 '탄생' (라미레스)을 부른 후 '고요한 밤'에서 레슬리 가렛과 이중창으로 합류하는데, 그윽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촉촉한 허밍을 넣기도 하는 호세 쿠라의 표정은 압권! 여러 번 봐도 이 영상물에서의 레슬리는 너무도 아름답다!

Lesley Garrett

한국 기타 연주계의 든든한 미래

기타리스트 장대건 Daekun Jang



AMC2-073

선착순 1,000명에게
‘알폰시나와 바다’
기타악보를 드립니다.

장대건 | 기타의 노래들

카날스, 밀란, 소르 등 유럽의 수많은 국제 콩쿠르를 석권하고, 스페인에서 활동해온 기타리스트 장대건의 한국 데뷔음반. 상세하고 풍성한 내지 해설도 직접 감수했다. 경력만으로도 독보적이지만 연주를 들으면 더 놀라게 된다. 정교하고 화려한 기교, 깊은 사색, 정감 있는 표현 등 그야말로 기타 예술의 진수를 들려준다.

우선 앞길이 훤히 열려있는 유망한 기타리스트 장대건의 음반을 폐사에서 내게 되어 연주자 본인만큼이나 기쁘다. 꽤 오래 전에 어떤 유명 기타리스트 연주회장에 갔었던 일이 기억난다. 그때 그의 연주를 듣고 크게 감동한 나는, 우리나라에는 언제나 저런 기타리스트가 등장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줄곧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다. 아니,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장대건을 처음 만나 직접 그의 연주를 접하고는 내가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 지녀왔던 기대가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현재 장대건이란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타 매니아 외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내지 뒷부분에 실린 그의 이력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스페인과 유럽 무대에서는 최고의 찬사를 받는 극소수의 젊은 연주자들 중 한사람이다. 장대건은 기타의 본고장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정통 기타리스트다. 당연히 자부심도 대단하다. 아마 눈치 빠른 애호가들은 흔히 들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기타 곡들이 곳곳에 들어 있는 이 음반을 잠깐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정류이나 아카데미한 취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대건이 당초에 내놓자고 한 레퍼토리들은 모두 기타의 잠재력과 연주자의 능력을 최고 수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었다. 많은 연주자들을 만나왔지만, 장대건처럼 자신의 두

려한 소신을 피력하고 자신만의 특별한 레퍼토리를 꾸며온 연주가는 드물었던 것 같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어려운 기타 음악을 선보이며 등장하기 보다는 두루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 레퍼토리들을 더러 섞어 첫인상을 조금 편안하게 해보자고 했다. 결국 그는 회사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몇몇 곡들을 다시 가감했다. 그의 연주는 음반을 만들면서 많이 들어봤는데, 역시 완벽한 테크닉이나 음악적 통찰 및 예민한 감수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장의 그것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장대건은 세계 기타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빼어난 인재 중의 한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니, 그는 우리나라 기타연주계의 앞날인 셈이다. 바이올린이나 첼로, 피아노 등 몇몇 인기 악기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연주자들이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온지 오래다. 하지만 클래식 기타 분야를 얘기한다면, 이렇다할 연주가를 내세울 수 없는 형편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기타리스트 장대건은 우리의 척박한 기타 연주계의 토양에 내린 단비이며, 장차 커다란 기타의 나무를 키워갈 수 있는 귀중한 씨앗이라고 믿는다. 그의 끝없는 발전을 기대하며 기꺼이 이 음반을 내놓는다. (아울로스 미디어)

기타리스트 장대건, 그는 누구인가

이 시대 기타 음악계를 이끌어갈 연주자로 평가 받고 있는 기타리스트 장대건은 현재 스페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1997년 유네스코 국제 콩쿠르 연맹에 가입된 세계적인 콩쿠르인 스페인의 마리아 카날스 국제 콩쿠르 기타 부문에서 3위에 입상함으로써 크게 주목 받았다. 메이저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것은 한국 기타 연주계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후 2003년까지 루이스 밀란 국제 콩쿠르(스페인), 쿠쿨칸 국제 콩쿠르(멕시코), 사라우츠 국제 콩쿠르(스페인)에서 우승했고, 그 외에도 홀리안 아르카스 국제 콩쿠르(스페인), 페르난도 소르 국제 콩쿠르(이탈리아), 타레가 국제 콩쿠르(스페인), 기타의 봄 국제 콩쿠르(벨기에), 코리아 국제 콩쿠르(스페인), 푸엔테 헤닐 국제 콩쿠르(스페인), 알함브라 국제 콩쿠르(스페인), 안드레스 세고비아 국제 콩쿠르(스페인), 세르난셀레 국제 콩쿠르(포르투갈) 등 20여 국제 대회에서 입상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그의 입상이력은 개인적인 영예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 기타리스트의 음악성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연주활동도 왕성하다. 지금까지 스페인 전 지역을 포함하여 이탈리아, 독일,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멕시코, 일본, 서울 등지에서 초청 연주 했고, 멕시코 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페인 에우로파 메디테라네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다. 실내악 활동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는 바이올린, 플룻, 성악, 현악사중주 등과의 다양한 악기와 함께 연주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3년 스페인 루이스 밀란 국제 콩쿠르 실내악 부문에서 기타 4중주의 멤버로 상위 입상한 일도 있었다. 재능 있는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정성을 쏟고 있는 그는 스페인 아스토르가 국제 음악제, 투이 국제 기타 페스티벌, 리카르도 칩 기타 음악제, 발라게르 여름 음악제, 마드리드 헤타페 시립 음악원, 레리다 시립 음악원 등에서 초빙 교수로 일했고, 스페인, 한국, 멕시코에서는 수차례 마스터 클래스를 지도하기도 했다. 심사위원 활동도 주목된다. 스페인 아스토르가 국제 음악제에서 기타 콩쿠르를 주관, 심사했고, 그 외 스페인 바예 데 데구에스 국제 콩쿠르, 스페인 루이스 밀란 국제 기타 콩쿠르 솔로 부문과 실내악 부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장대건의 연주는 스페인 국영 텔레비전인 TV 2, Canal 9, Canal Sur,

Canal Castellon, Radio 2 Clasica, 한국의 KBS, SBS, Arte TV 등에서 방영 혹은 방송되기도 했다. 장대건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리세오 왕립음악원 그리고 에스콜라 루티에르에서 마누엘 곤잘레스(Manuel González)와 공부하고 알리칸테 고등 음악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세계적인 명교수 호세 토마스(José Tomás)한테 배우고 1997년에 졸업 하였다. 같은 헤스위스 바젤 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에 입학, 세고비아의 후계자이자 기타계의 대부인 오스카 길리아(Oscar Ghiglia)의 지도를 받고, 2000년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학위인 솔리스트 디플롬을 받았다. 또 졸업하기까지 고 음악 학교인 스위스 바젤 스크라 칸토름 에서 고음악 탄현악기 연주자 피터 크로톤(Peter Croton)에게 바로크 통주저음과 르네상스 탄현악기 연주법을 배우고, 고 음악 부터 현대음악까지 모든 장르의 음악에 대한 세미나 및 마스터 클래스 과정을 레온하르트(G. Leonhardt), 슈나이더(E. Schneider), 아리아가(G. Arriaga), 스미스(H. Smith), 쿠르탁(G. Kurtag)등 저명한 대가들로부터 이수하였다.

앨범수록곡

- 01 Romanza 로만사
- 02 La Maja de Goya 라 마하 데 고야 (고야의 마하)
- 03 Agua e Vinho 아구아 에 빈요 (물과 포도주)
- 04 Alfonsina y el mar 알폰시나 이엘 마르 (알폰시나와 바다)
- 05 Lágrima 라그리마 (눈물)
- 06 Adelita 아델리타
- 07 Mazurka 마주르카
- 08 Marieta 마리에타
- 09 Secret Love
- 10 Etude no. 17 op. 35 에튀드
- 11 Bagatelle no.5 op.43 (from Mes Ennis Six Bagatelles) 바가텔
- 12 Cavatina 카바티나
- 13 El noi de la Mare 엘 노이 델라 마레 (성모의 아들)
- 14 Canço del Lladre 칸소 델 아드레 (도둑의 노래)
- 15 El testament d'Amelia 엘 테스타멘 다멜리아 (아멜리아의 유서)
- 16 Lo rossinyol 로 로시뇰 (피교리)
- 17 L' Hereu Riera 레레우 리에라 (상속인 리에라)
- 18 La nit de Nadal (el desembre congelat) 라 닛 데 나달 (엘 데셈브레 콘젤랏) 성탄절 밤 (얼어붙은 12월)
- 19 Tonadilla 토나디아
- 20 Tango 탱고
- 21 Guajira 구아히라
- 22 Over the Rainbow
- 23 Cinema Paradiso (Love Theme) 치네마 파라디소 (시네마 천국)

*Bonus Track
Henry Clay Work _ 헨리 클레이 워크
24 Grandfather's Clock 할아버지 시계

영혼을 울리는 깊고 풍부한 음성, 노르웨이 가수

마리안 안톤센 Marianne Antonsen

마리안 안톤센은 1970년 프레드릭스타(Fredrikstad)에서 태어난 노르웨이의 여성 가수다. 그녀는 일찌감치 음악에 재능을 보였고, 음악 “체스”로 15세 때부터 아주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다. 당시 너무 많은 관심이 쇄도해서 어린 소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이 놀라운 재능을 가졌던 그녀가 소녀 시절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아했던 것은 의외로 배구였다고 한다. 그녀는 20세 때인 1990년 여름에 사

르프스보르그(Sarpsborg)에서 몇몇 지방 공연을 가졌는데, 그것은 이름하여 “저스트 포 펀(Just 4 Fun)” 사중주였다. 그들의 연주는 나중에 두 장의 음반으로 발매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R&B 음악에 몰입해 그 그룹을 금방 떠나버리고, 1992년에 드디어 아프로-아메리카 음악의 영향을 받은 “피킹 업 더 스피리트(Pickin’ up the Spirit)”란 솔로 음반을 내놓기에 이른다. 1998년에 마리안은 미시시피와 알라바마

에서 취입하여, 유명한 말라코(Malaco)음반사 레이블로 “프레임 디스 모먼트(Frame this Moment)”란 음반을 출시했다. 그녀가 부른 노래 중에 “렛 더 펑크 플로우(Let the funk flow)”는 마침내 히트 40을 기록했고, 그해 히트 상을 뽑는 자리에서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그녀가 “베스트 여성 아티스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그녀의 음반 중에 가장 주목 받았던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 어떤 음반보다도 “영혼을 울리는 크리스마스 노래들(Soulful Christmas Songs)”이다. 그녀는 음반을 내기 전에 노르웨이 프레드릭스타 “옛 마을”에서 영혼을 울리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가졌었고 콘서트를 보러온 수많은 노르웨이 국민들의 가슴을 촉촉하게 해 준 경험이 있다. 그녀의 음성은 매우 깊고 볼륨이 있는데, 그 음성이 전통 크리스마스 노래 뿐만 아니라 블루스의 영향을 받은 미국 노래들에도 아주 잘 어울린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그녀가 노래하면 어떤 노래든 특별한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평가를 내려왔다. 2005년에 마리안은 두 명의 유명한 여성 아티스트, 리타 에릭센(Rita Eriksen), 아니타 스크르간(Anita Skorgan)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 그해 10월에는 마침내 “프롬 더 파운틴(From the Fountain)”란 앨범까지 발매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아티스트들과도 완전한 호흡을 보여줬다.



히르켈리히에서 나온 마리안 안톤센의 음반들



FXCD 152

MARIANNE ANTONSEN: BLOMSTER I SOWETO (블롬스테르 이 소웨토: 소웨토에 꽃을!)

노르웨이와 남아공 음악의 만남!
남아공 자유총선거를 경축하기 위해 제작된 이 음반에는 남아공 현지의 줄루족, 소사족 합창단과 마리안 안톤센이 함께 해 자유와 평등의 메시지를 전한다. 음악을 통해 인종차별의 장벽을 뛰어넘은 감동적인 앨범이다.



FXCD 193

MARIANNE ANTONSEN: FRAME THIS MOMENT

마리안 안톤센은 노르웨이 뮤지션임에도 흑인영가, 블루스의 재해석에 일가견이 있다. 특히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매혹적인 저음은 그러한 장르를 표현하는데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도로서 무어의 명곡 〈Misty Blue〉의 그윽한 리메이크는 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

MARIANNE ANTONSEN: PICKIN’ UP THE SPIRIT

커피보다도 진한 보이스의 소유자 마리안 안톤센의 영어앨범.
흑인영가와 블루스를 넘나드는 이 음반에는 〈Nobody Knows〉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같은 명곡들이 담겨있다.
중성에 가까운 마리안 안톤센의 보컬과 오르간 연주가 깊이와 운치를 동시에 전한다.



FXCD 116

MARIANNE ANTONSEN: SOULFUL CHRISTMAS SONGS

허스키한 중성의 목소리를 지닌 마리안 안톤센이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노래 모음집.
앨범 제목이 말해주듯, 그녀가 가진 매력적인 깊고 풍성한 보이스 색채를 맘껏 펼쳐 보인
가장 소울풀한 음반이다. 차분하게 성탄절 이브를 맞고 싶은 분,
아름다웠던 크리스마스를 회상하고픈 분들에게는 최고의 앨범이 아닐까?



FXCD 230



TDK DVD



TDK DVWW-BLYMCA

박자를 이루어 20세기 발레의 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최상의 영상물.

[보충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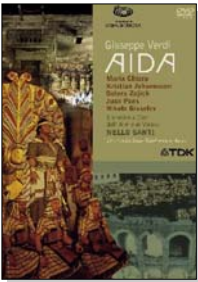
○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안무가 롤랑 프티(1924~)는 대단히 다양한 스타일을 지닌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난해하고 묵직한 발레보다는 미술적인 감각과 대중성으로 무장하여 누구나 쉽게 발레의 매력에 빠져 들게 만드는 존재다. 60년 이상 계속 발레를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환영을 받는 작품들은 새파랗게 젊었던 1940년대에 만든 것이다. 세계대전이 막 끝난 무거운 사회분위기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작이 <젊은이와 죽음>이다. 바흐의 웅장하고 치열한 파사칼리아 C단조, BWV 582를 배경으로 죽음을 부르는 팜므 파탈의 압박에 스스로 목을 매는 젊은이의 모습을 충격적으로 그려냈다.

○ 이보다 3년 후에 만들어진 <카르멘>은 롤랑 프티의 대표작이며 화려한 색감, 육감적인 안무로 여러 에피소드를 엮어 하나의 줄거리 있는 발레로 만드는 프티의 스타일을 정립한 역사적인 작품이다. 특히 초연 당시 카르멘을 추었고 이후 30년 이상 이 역할을 독점하다시피 한 지지 장메르는 롤랑 프티의 아내가 되었다. 지지 장메르의 도발적인 의상, 섹시한 춤은 엄청난 화제를 뿌렸고 수많은 발레리나들이 가장 도전하고 싶은 역할로 자리 잡았다.

○ <카르멘>의 두 주역을 맡은 클레어마리 오스타와 니콜라 르 리쉬는 아네스 레테스튀, 호세 마르티네즈와 함께 파리 오페라 발레의 대표적인 부부 커플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니콜라 르 리쉬와 대조적으로 소녀적인 매력을 지닌 클레어마리 오스타인데, 그녀가 카르멘을 춘다는 것 자체가 도발적인 이미지 변신이다.

롤랑 프티: 젊은이와 죽음 & 카르멘

천재성으로 빛나던 롤랑 프티의 젊은 시절을 대표하는 걸작 두 편 발레리노 미하일 바리시니코프가 출연한 영화 <백야>를 기억하는가? 특히 그 도입부를 장식한 가슴을 후벼내는 듯 음산한 발레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롤랑 프티가 22세에 안무했던 <젊은이와 죽음>이란 걸작이다. 롤랑 프티는 80세가 넘는 아직까지도 현역 안무가로 활약하고 있지만 겨우 20대이던 1940년대 후반에 가장 번득이는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것이 1946년의 <젊은이와 죽음>,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은 공연 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1949년의 <카르멘>이다. 본 DVD는 롤랑 프티가 마르세이유 발레의 예술감독을 물러난 이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파리 오페라 발레의 2005년 7월 실황이다. 프랑스뿐 아니라 전 유럽에서 가장 남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무용수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니콜라 르 리쉬가 두 작품 모두 주역을 맡았다. <젊은이와 죽음>에서 보여준 치열한 연기력과 그 감동은 바리시니코프를 넘어섰다고 할 정도이다. <카르멘>은 르리쉬의 아내이자 역시 파리 오페라 발레의 에투왈(주역 발레리나)인 클레어마리 오스타가 나섰다. 작품, 공연, 영상물로서의 질이 완벽한 3



TDK DVWW-OPAIDV

베르디: 아이다

베로나 페스티벌의 기원인 1913년 무대를 그대로 재현한 <아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유명한 베로나가 오페라 페스티벌의 도시로 변모한 것은 1913년이다. 고대 로마의 원형극장인 아레나 디 베로나에서 베르디 탄생 100주년을 축하하는 <아이다>가 공연된 것이다. 이는 약외 오페라의 실질적 개막을 알린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유럽 오페라 페스티벌의 진정한 효시로 기록되었다. 당시 공연을 주도한 인물들은 카루소의 라이벌이었던 테너 조반니 제나텔로와 위대한 지휘자 톨리오 세라핀. 무대는 이 고장 출신의 건축가 겸 화가 에토레 파치올리가 담당했다. 파치올리는 지금 시각으로 보더라도 전혀 손색 없는 무대를 만들었다. 무대 양편에 거대한 이집트 오벨리스크를 배치하는 것으로 고대 이집트의 분위기를 충분히 살렸을 뿐 아니라 프랑스 고고학자 오귀스트 마리에트의 고증에 따라 의상을 디자인했다. 이 오리지널 무대는 1980년대에 잔프랑코 데 보시오에 의해 리바이벌되어 13년간이나 계속되었다. 본 영상물은 그중 1992년 여름 페스티벌 실황을 담았다. 당대 최고의 아이다로 불렸던 마리아 키아라가 타이틀 롤을, 아이슬랜드 출신의 대형 테너 크리스티안 요한슨이 라다메스를, 마릴린 혼도 격찬했던 미국의 메조소프라노 돌로라 자지치가 암네리스를 맡았고 넬로 산티가 지휘대에 올라 가장 베로나다운 공연을 펼친다.

[보충 자료]

○ 베로나 여름 페스티벌은 이곳이 고향인 테너 조반니 제나텔로(1876~1949)에 의해 창시되었다. 그는 바리톤에서 테너로 전향한 드라 마티크 테너였으며, 당대에는 카루소에 견줄만한 세기의 테너로 숭상되었다. 특히 그의 <오텔로>는 '타마뇨의 재래'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타마뇨는 대지휘자 톨리오 세라핀(1878~1968)과 함께 1913년 베르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베로나 고대 야외경기장의 역사적 첫 공연인 <아이다>를 성사시켰고, 직접 라다메스 역을 노래했다.

○ 마리아 키아라(1939~)는 1980년대에 <아이다>를 가장 많이 부른 소프라노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드라마틱한 대형가수는 아니고 <아이다> 이전에는 <라 트라비아타>나 <마농 레스코>를 잘 불렀다. 키아라의 <아이다>는 극적인 전개를 무척 섬세하게 펼쳐낸다는 평을 받는다. 본 영상물은 1992년 실황으로 키아라의 전성기는 살짝 지나갔지만 여전히 녹슬지 않은 기량으로 아이다를 소화했다.



TDK DVWW-OPELEK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엘렉트라

오페라 역사상 최고의 잔혹극! 취리히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다 <엘렉트라>는 소포클레스의 비극으로 유명한 그리스 고전극이다. 트로이 전쟁에서 귀환하자마자 부정한 아내 클뤼템네스트라와 그녀의 정부 에기스트에게 살해당한 미케네 국왕 아가멤논.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하는 엘렉트라 공주와 그 여동생 크리소미데스, 남동생 오레스트의 애기다. 모친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기에 고전이면서도 금기시되었던 소재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당대 최고의 극작가 후고 폰 호프만스탈과 협력하여 수많은 명작을 만들었는데 그 첫 작품이 <엘렉트라>였다. 얼핏 바그너를 연상시키지만 그 폭발적인 강렬함은 <니벨룽의 반지> 이상이다. 과연 섬뜩한 오페라의 대표작인 것이다. 본 영상물은 2005년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실황이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연극 파트를 총괄하는 거물 마틴 쿨레이의 연출이다. 쿨레이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굵듯이 파헤치는 스타일로 유명한데 이 공연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모든 엘렉트라를 압도하는 에바 요한슨의 노래와 연기가 압권이며 현대적 상황설정이 전혀 낯설지 않은 일급 프로덕션이다. 비쉬코프와 함께 최고의 슈트라우스 지휘자로 꼽히는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가 지휘대에 섰다.

[보충 자료]

○ 독일 후기낭만파를 대표하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1864~1949)의 오페라는 크게 두개의 흐름으로 나뉜다. 하나는 모차르트의 고전적인 투명함을 계승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그너를 계승한 대대적인 약극이다. <엘렉트라>는 바그너를 계승한 대표작이다. 또한 후고 폰 호프만스탈(1874~1929)라는 천재적인 극작가와 협력관계에 나선 첫 작품이기도 하다.

○ 이 영상물의 출연진 중에서 엘렉트라 역의 에바 요한슨과 클뤼템네스트라 역의 마리아나 리프브세크가 특별히 뛰어나다. 에바 요한슨은 덴마크 코펜하겐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기력을 동반한 뛰어난 가창으로 바그너와 슈트라우스를 잘 소화하는 가수다. 슬로베니아의 마리아나 리프브세크는 한때 세계 최고의 메조소프라노로 불린 적도 있으며 이탈리아나 프랑스 페레토리도 잘 부른다.

○ 지휘자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1929~)는 헝가리의 작곡가 에르스트 폰 도흐나니의 손자이지만 베를린에서 태어난 독일 지휘자이다. 40년 이상 큰 기복없이 세계적인 지휘자의 반열에 올라있는데, 특히 헝가리 음악과 독일 후기 낭만주의에 절제적인 강점이 있다.



TDK DVUS-BLPAQ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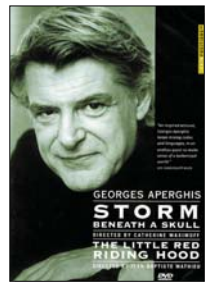
파키타

100년 만에 전막으로 복원된 스페인 배경의 고전 발레 명작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파키타>는 원래 19세기 중반에 프랑스에서 초연된 낭만 발레였지만 러시아로 전해진 다음에 마리우스 프티파가 덧붙인 고전 발레 스타일의 피날레 덕분에 유명해졌다. 이 피날레는 요즘도 갈라 공연에 포함되는 가장 인기 있는 레퍼토리의 하나이지만 원작은 완전히 잊혀진 상태였다. 파리 오페라 발레의 복원전문 원로 안무가 피에르 라코트는 프랑스에서 초연된 원형을 재현하고자 1세기 전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전막 공연에 참여한 발레리나와 인터뷰했던 옛 기억과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108분짜리 전막 발레로 되살렸다. 물론 유명한 피날레 장면도 프티파의 안무에 의거하여 덧붙였다. 파리 오페라 발레의 유명한 부부 무용수인 아네스 레테스튀(파키타)와 호세 마르티네즈(루시앙)이 주역을 맡은 2003년 1월 최신 실황이며 아름다운 화질과 음질을 보장하는 영상물이다.

Ludwig Minkus *Paquita*

JUXTAPOSITIONS™
www.ideale-audience.com

JUXTAPOS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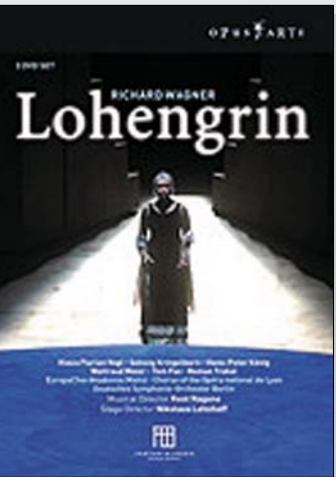
Ideale Audience
DVD9DS18

조르주 아페르기스: 해골 아래의 폭풍 / 작고 빨간 두건

현대의 유명 작가들을 아주 '예술적으로' 조명한 영상물로 인기를 모았던 적스타포지션스 시리즈가 새로 내놓은 아테네 태생의 그리스 작가 조르주 아페르기스의 무대작품. 아페르기스는 여배우 에디스 스코브(Edith Scob)의 남편으로 음악 및 극장 회사인 ATEM의 창립자이며 주로 실험음악극장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크세나키스의 제자였고, 카겔(Kagel)로부터는 거대한 극장 작품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 많이 배웠던 아페르기스는 지금까지 매우 현란하고 화려한 작품을 만들어왔다. <해골 아래의 폭풍>은 세심한 관찰과 강렬한 유머감각으로 언어, 소리, 시각적 요소 사이의 새로운 유사점을 찾아낸 작품이고, <작고 빨간 두건>은 17세기 프랑스 동화작가 샤를 페로의 텍스트를 사용한 환상적인 작품이다. 야릇한 불빛, 기이한 늑대 가면을 쓴 연주자가 등장하는 무대에서 숨을 죽인 관객들은 아주 특별한 게임을 즐기게 된다.

Opus ARTE
www.opusarte.com

Opus Arte DVD



Opus Arte OA 0964

바그너: 로엔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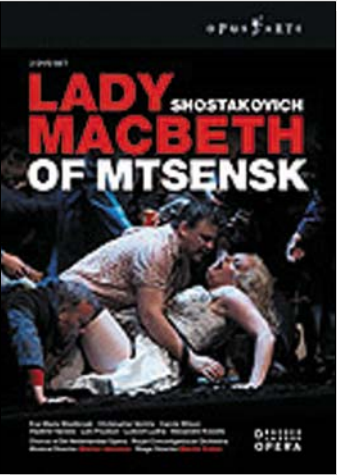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로엔그린>
<로엔그린>은 리하르트 바그너가 전통적인 오페라 어법에서 자신만의 음악극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위치한 과도기적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연 시간도 무척 길고 음악은 이전의 오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디테일한 측면까지 파고든다. 그런데 주인공 로엔그린은 성배의 기사이며 그동안 상당히 영웅적인 캐릭터로 그려지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런데 2006년 6월 독일 남서부의 바덴-바덴 축제극장의 최신 실황인 본 영상물에서는 이런 관점이 무너진다. 간결하고도 확신에 찬 연출자 니콜라우스 렌호프는 전설에 기초한 이 이야기를 현대물로 바꾸면서 이전의 어느 프로덕션보다도 엘자와 로엔그린 커플을 눈보다 하얀 백색의 순결한 커플로, 오르트루트와 텔라문트를 악마적인 검은 커플로 명료하게 대비시켰다. 이를 위해 로엔그린役に 클라우스 플로리안 포크트, 엘자役に 솔베이그 크링게보른이라는 리릭 테너와 리릭 소프라노를 캐스팅했다. 모차르트 오페라에 어울릴 가수들이 주역을 노래하면서 <로엔그린>의 분위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연출자의 의도에 면밀하게 반응한다. 결혼식이 열리는 2막 후반부가 거대한 종교음악처럼 연주된 것은 그 좋은 예라 하겠다.

[보충 자료]

○ 독일 뷔르템부르크 주에 소재한 바덴-바덴의 페스트슈필하우스는 약 2,500석 규모의 현재 독일에서 가장 큰 오페라 극장이다. 1998년에 4월에 개관하여 인구 5만명의 소도시 바덴-바덴을 일약 독일 공연문화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이미 많은 공연이 벌어졌는데 그중 특별히 주목할 것으로는 서울에서도 공연된 마린스키 프로덕션을 올린 <니벨룽의 반지> 4부작(2001), 그리고 본 영상물과 마찬가지로 니콜라우스 렌호프가 연출하고 켄트 나가노가 지휘한 <파르지팔>(2004) 등이 있다. 동 극장은 러시아의 마린스키 극장, 프랑스의 액상-프로방스 페스티벌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연출자 니콜라우스 렌호프는 빌란트 바그너와 프랑코 제피렐리의 조수를 거쳐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오페라 연출을 시작했다. 간결한 무대와 치밀한 캐릭터 분석, 심리적인 해석에 뛰어나며 독일, 오스트리아는 물론 미국, 영국, 이탈리아의 주요 가극장에서 찾는 대가로 자리 잡았다.

○ 본 영상물에서 가장 주목할 가수는 역시 로엔그린 역의 클라우스 플로리안 포크트이다. 하노버와 함부르크에서 공부한 후 1998년부터 5년간 드레스덴의 젤퍼오퍼에서 실력을 닦은 비교적 신예이다. 소리 자체는 독일계 리릭 테너 중에서도 두드러진 미성이지만 플로레스탄(피델리오)을 비롯한 묵직한 배역도 불렀다. 이런 경력이 로엔그린으로 캐스팅된 배경이다.



Opus Arte OA 0965

쇼스타코비치: 므젠스크의 맥베스 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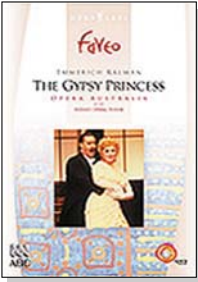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에 부쳐 챙겨두어야 할 기념비적 오페라 2006년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소비에트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1906~75)의 탄생 100주년이었다. 이를 기념하여 그의 교향곡과 실내악, 협주곡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오페라 역사상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한 〈므젠스크의 맥베스 부인〉이야말로 2006년에 가장 큰 각광을 받은 작품이라 하겠다. 본 영상물은 2006년 6월에 암스테르담에서 공연된 최신 실황이다. 빈 필, 베를린 필과 더불어 세계 악단에서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로열 콘서트헤보 오케스트라를 이 악단의 상임지휘자 마리스 안손스가 지휘했다. 구 소련권인 라트비아 출신의 안손스는 현존하는 쇼스타코비치 최고의 지휘자답게 음침하면서도 통렬한 이 오페라의 매력을 남김없이 끌어냈다. 〈므젠스크의 맥베스 부인〉은 정부와 놀아나다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살해하는 요부 카테리나 이즈마일로바의 얘기다. 내용 자체가 너무도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섹스 장면도 포함되어 초연 당시에는 ‘포르노’로 몰리기도 했다. 연출자 마르틴 쿠제이는 현재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연극 파트를 총괄하는 거물이며 원초적 욕욕이 이성을 짓밟고 압搾한 피날레로 치닫는 상황을 극적으로 구현했다. 에로틱한 관능보다 인간사의 어둡고 비밀스런 진실에 더 주목한 프로덕션이다.

[보충 자료]

○ 1934년에 초연된 〈므젠스크의 맥베스 부인〉은 한때 순화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카테리나 이즈마일로바〉라는 제목으로 공연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초연 당시의 판본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토록 오페라 역사상 가장 섹슈얼한 작품이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시대에 작곡되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적 어법도 대중적 취향보다는 등장인물들의 내적 충동을 표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것이 실로 적나라하게 표출되면서 놀라운 현실감으로 나타난다.

○ 연출자 마르틴 쿠제이는 현대적 드라마의 거물답게 이 오페라를 ‘관능극’으로 그려내지 않는다. 그러자면 늘씬하고 미모를 갖춘 가수들을 동원했으리라. 대신 욕정에서 비롯되는 인간사의 어두운 부분, 희망을 얘기하고 싶지만 정반대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실,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갈등, 영원한 사랑 대신 배반이 난무하는 세상을 그려내고 있다. 물론 연기력과 가창력이 철저하게 검증된 가수들을 선별하여 연출자의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달한다.

○ 지휘자 마리스 안손스는 클라우디오 아바도, 리카르도 샤이, 사이먼 래틀, 베르나르트 하이팅크와 더불어 현역 최고로 평가받는 대지휘자이며 현재 로열 콘서트헤보 오케스트라와 바이에른 방송 오케스트라라는 유럽 최정상의 두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다.



Opus Arte OAF4018D

칼만: 집시 공주

왕자와 사랑에 빠진 카바레 스타 실바 바레스쿠, 그 유쾌한 오페레타 헝가리 작곡가 에머리히 칼만(1882~1953)은 젊은 시절에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요한 슈트라우스와 프란츠 레하르를 잇는 빈 오페레타의 명장으로 큰 성공을 거둔 오페레타 역사상의 중요한 인물이다. 빈 왈츠를 멋지게 사용한 것은 기본이고 헝가리 출신답게 차르다슈를 비롯한 헝가리 민속음악을 비중 있게 다룬 것이 그의 특징이다. 〈집시 공주〉는 칼만의 출세작으로 꼽힌다. 에드윈 왕자는 카바레의 스타 실바 바레스쿠와 사랑에 빠진다. 신분 차이가 있는 이들의 사랑을 가족들이 반길 리 없다. 급히 먼 친척뻘인 아나스타샤를 에드윈과 맺어주려 한다. 그러나 아나스타샤는 에드윈이 아니라 그의 친구 보니에게 빠져들고... 빈 카페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시종일관 흥미진진한 작품. 1990년 오페라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오페라 극장 실황이며, 실바 역을 부른 데보라 리델의 매력이 대단하다. 눈을 즐겁게 만드는 화려한 무대와 의상 또한 빈 오페레타의 진수로 손색이 없다.



Opus Arte OAF4020D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특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극장에 펼쳐진 보석 같은 오페라의 향연 최근 한 외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의 하나인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가 파손된다면 그 복원비용이 한화로 1조 2천억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이 얘기를 흘린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당국자는 “건립하는데 그 돈이 든다는 것이지 누가 그만큼 준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보다 훨씬 큰 천문학적 가치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토록 아름다운 극장을 근거지로 사용하는 오페라단은 ‘오페라 오스트레일리아’이다. 자체적으로 육성한 호주 가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세계적인 대가수들을 주역으로 초청하며 극장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친다. 본 영상물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제작한 수많은 오페라 영상물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일곱 개의 명작에서 선별한 하이라이트이다. 〈라 보엠〉 〈일 트로바토레〉 〈토스카〉 〈가면무도회〉 〈라크메〉 〈라 트라비아타〉 〈메리 위도우〉를 호주 출신의 세계적 디바 조운 서덜랜드를 비롯하여 에바 마르톤, 레오나 미첼 등 특급 가수들이 부른다.

DVD VIDEO

JUXTAPOSITIONS™

A FILM BY BRUNO MONSIEGEON

글렌 굴드 HEREAFTER

브루노 몽생종 제작 필름.
2006년 피파 도르상에 빛나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글렌 굴드의 친구로 그에 관한 저서를 네 권이나 썼던 세계 제일의 글렌 굴드 전문가이며 필름 제작자인 브루노 몽생종의 회심작이다.

연주가의 생애를 그대로 더듬는 평범한 바이오그래피 수준이 아니라 예리한 통찰과 상상력으로 진한 감동을 유도하는 하나의 예술 영상이다.

굴드를 내레이터 역할로 만들었고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동영상이나 사진 컷들을 어마어마하게 실었다. 연주나 인터뷰 장면 외에 해변을 거니는 굴드의 모습이라든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길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광은 정말 꿈결 같다.

이제까지의 글렌 굴드에 관한 자료 중 가장 매혹적인 영상물이다.

2006년 피파(Fifa)상 음악 및 스펙터클 부문 수상작이다. 106분.

Ideale Audience DVD9DM20

Im Takt Der Zeit

시대의 흐름 속으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자체 제작 CD 12타이틀 출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의 역사를 담은 자체 제작 시리즈
“Im Takt der Zeit”(시대의 흐름 속으로)의 전체 12타이틀을 소개합니다.

1913년 알프레드 헤르츠가 지휘한 파르지팔 관현악 하이라이트에서
2002년 니콜라스 아르농쿠르가 지휘한 바흐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전체를 대표하는 13명의 거장과 베를린 필이 함께한 최고의 명연들을 CD에 담았으며,
그 대부분이 최초로 CD로 발매되는 것들이기에 그 가치는 더욱 돋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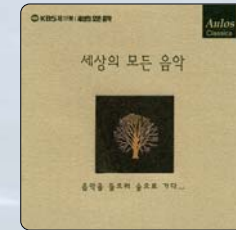
BPH 0601 바그너: 파르지팔 관현악 하이라이트 리스트: 헝가리 랩소디 1번 베를리오즈: 로마의 사육제 서곡 지휘: 알프레드 헤르츠(바그너), 아르투르 니키쉬 1913, 1920년 녹음 Mono	BPH 0602 브루크너: 교향곡 7번 지휘: 야샤 호렌슈타인 1928년 녹음 Mono	BPH 0603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슈베르트: 교향곡 7번 '미완성' 지휘: 에리히 클라이버 1930-35년 녹음 Mono	BPH 0604 베토벤: 교향곡 1번, 5번 리벨: 디프니스와 클로에 2번 모음곡 지휘: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1943, 44, 54년 녹음 Mono
BPH 0605 멘델스존: 교향곡 4번 '이탈리아' 드뷔시: 유회 미요: 프랑스 모음곡 지휘: 헤르만 애펜도르프 1948, 50, 51년 녹음 Mono	BPH 0606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지휘: 헤르베르트 폰 카리안 1963년 10월 15일 녹음	BPH 0607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 지휘: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1972년 3월 16일 녹음	BPH 0608 말라: 교향곡 6번 '비극적' 지휘: 사이먼 래틀 1987년 11월 14-5일 녹음
BPH 0609 베토벤: 교향곡 7번, 피아노협주곡 1번 지휘&피아노: 다니엘 바렌보임 1989년 11월 12일 녹음	BPH 0610 모차르트: 세레나데 K250 '하프너', 행진곡 K249 지휘: 클라우디오 아바도, 바이올린: 라이너 쿠스마울 1996년 12월 13-5일 녹음	BPH 0611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5번 하이든: 교향곡 82번 '곰' 지휘: 쿠르트 잔데링 1997년 6월 9일, 1999년 3월 16일 녹음	BPH 0612 JS 바흐: 관현악모음곡 1, 3번,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1060 지휘: 니콜라스 아르농쿠르 바이올린: 토마스 체테타이어 오보에: 알브레흐트 마이어 2002년 10월 5일 녹음

KBS 제1FM / 93.1 MHz

Aulos
Media

경이로운 판매량, 초 인기 월드 뮤직 베스트 음반!!

KBS FM [세상의 모든 음악] 1, 2, 3집



AMC2-014

세상의 모든 음악 1집
음악을 들으며 숲으로 가다.



AMC2-047

세상의 모든 음악 2집
세상의 모든 음악,
김미숙입니다...
PM 6:00...〈잠〉



AMC2-062

세상의 모든 음악 3집
저녁, 길모퉁이 카페...

KBS FM <세상의 모든 음악>스택진과 아울로스 미디어가 엄선한 주옥같은 서정시.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식과 위로와 평화의 음악을 제공한다.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들으며 저녁 여섯시를 맞이하는 청취자들에게...
저녁여섯시의 소우주를 선물한다. 언제, 어디서나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하기를...

KBS 제1FM / 93.1 MHz

FM 풍류마을 제작진이 직접 만든 이지 리스닝 국악 가이드

우리 음악으로 이끄는 징검다리 FM 풍류마을



AMC2-072

KBS 제1FM의 인기 국악 프로그램
〈FM 풍류마을〉의 제작진이 우리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출시한 회심의 웰빙 음반.

그간 애청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했던 빅히트 넘버들 가운데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른바 '이지 리스닝' 레퍼토리만을 엄선했다.

진정으로 좋아서 듣고 즐기며 감동 받을 수 있는 국악 레퍼토리들이 여기 다 모였다.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8,800개 음반 / 130,000 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1,900 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 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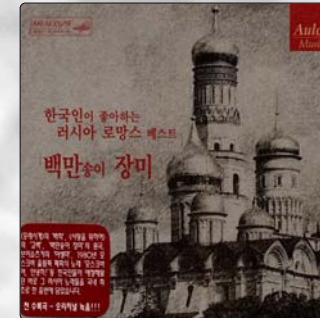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빌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한국인이 좋아하는 러시아 로망스 베스트 1, 2집



AMC2-018

한국인이 좋아하는
러시아 로망스 베스트
백만송이 장미



AMC2-045

한국인이 좋아하는
러시아 로망스 베스트 2
마마

스테디 셀러 · Steady Seller



AMC2-004

안나 게르만
정원에 꽃이 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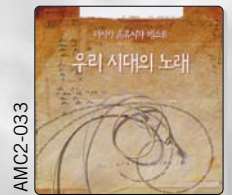
AMC2-015

루드밀라 센치나
신데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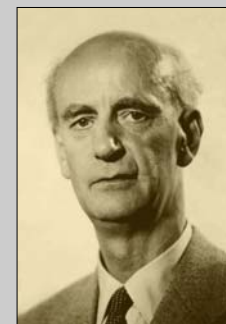
AMC2-021

올렉 뽀구진
러시아의 비가



AMC2-033

러시아 음유시인들
우리 시대의 노래



표지사진 :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6년 12월호
통권 제 18호 발행 : 2006년 11월 24일
발행인 : 임용목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